



코스피(2일)	2239.69 (-22.95P)	코스닥	676.52 (-6.95P)
환율(달러당 원화)	1167.00 (+8.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95% (-0.060%p)

우려 목소리에도...기업경영 통제 강화한 정부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연기금 5%룰’ 완화...국민연금 임금 세제 임기 6년 제한에 기업들 사외이사 구하기 ‘비상’

내달부터 ‘5%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3면
2월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과 위법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계

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돼 장기 재직이 금지된다. 재계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6년 12월 ‘스투어

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주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보고제도(5%룰)가 내달 1일부터 보고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공적연기금의 배당과 관련 주주활동, 사전 공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을 ‘경쟁력 개입 목적’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등 단순주주권 행사를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일반투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 월별로 거래내역을 약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단순투자는 기존대로 분기 약식보고가 유지된다. 공적연기금이 임원 선·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상세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정 회사(A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A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임원(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 시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운용 중인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중국인 관광객 10만 명 오는데...방역 비상 중국 설인 춘제를 전후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다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협력해 감시·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감정원 “올 수도권 집값 0.8% 하락”

대출규제·보유세 강화로 매수심리 위축 전망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한국감정원이 서울 강남지사 사옥에서 발표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9%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조사는 국가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수도권이 0.8%, 지방은 1.0%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고가주택의 가격 움직임이 둔화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

연구부 박사는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현 시세의 3~4% 수준이 될 것”이라며 “추가 세 부담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0.4%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수도권은 포함, 지방은 1.2% 하락한다는 예상이다.
올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80만 건으로 작년(81만 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감정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매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신 특약보험료 내려라” 자율 내세우며 ‘가격개입’ 나선 금융당국

KB손보 내달부터 10.3% 인하 삼성화재·현대해상 등도 검토

내달부터 손해율이 비교적 양호한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특약 보험료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달 초 KB손해보험에 이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의 특약 보험료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내달 8일부터 자동차보험 16개 특약에 대해 평균 10.3%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하한다. 대상은 △범용비용지원특약 △상급병실이용보상특약 △안전벨트착용상해특약 △간병비지원특약 △주말자기신체사고 위료금특약 △차량수리비확장특약 △다른자동차량손해추가특약 등 고보장 특약 조건이다. 특히 다른자동차량손해추가특약은 최대 15% 할인돼 인하폭이 가장 크다.

보험사	시기	인상폭
KB손해보험	1월 29일	3.5%
한화손해보험	2월 3일	3.5%
DB손해보험	2월 4일	3.4%
현대해상	2월 5일	3.5%
삼성화재	미정	3.3%
메리츠화재	미정	2%대

KB손보 관계자는 “손해율에 따른 특약 보험료 조정”이라며 “특약 선택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는 고객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들도 내달 특약 보험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인상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특약 보험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특약 보험료 조정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상 2주면 마무리되는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이 이번에는 한 달이 넘게 회신이 오지 않았다.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하던 당국은 3.5%가량 인상률을 묵인해준 대신 손해율이 좋은 특약은 요율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간접적 메시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 중 주요 담보 외에 기타특약 중 손해율이 비교적 양호한 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이 3%대 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특약 보험료까지 내려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손실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기 때문이다. 작년 1~11월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만 1조2938억 원의 손실을 봤다. 12월까지 더하면 2010년의 1조5369억 원 적자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연 기자 sjy@

‘1수업 2교사제’ 文공약 사문화

교육청별 자율 시행키로...“추진 잘될지 의문”

선도시범학교 수도 대폭 줄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1수업 2교사제’가 사문화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교실 수업 내실화를 위해 도입한 1수업 2교사제 시행이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 간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교사 양성 등의 우려가 많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해 ‘일대일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1수업 2교사제 도입 확대 방침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이 두리교사제란 명칭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1수업 2교사제에 손을 떼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입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을 상실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대원 실천교육교

사모임 대변인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집행 욕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1수업 2교사제는 교원 임용 절벽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1만6000명가량의 정규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 인력 충원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 교사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교사 2수업제 선도시범학교 수도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42개교로 시작한 선도학교는 지난해 74개교에서 올해 42개교(예상)로 대폭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가 학교 현장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형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금융계열사 사장단 전원 50代로 '세대교체'

삼성 금융계열사가 21일 일제히 대표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생명과 카드, 증권 모두 50대 중후반 인물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번 인사는 앞서 발표된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와 함께 승진과 유임을 적절히 섞어 안정을 추구했다는 평이다.

삼성생명은 새 대표 후보에 전영목 삼성 자산운용 대표를 추천했다. 삼성생명은 "전 대표 후보자가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는 삼성생명의 혁신을 가속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올해 만 55세다.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에서 처음 일한 뒤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2015~2018년 1월)과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을 역임하며 금융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안목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보험업계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업황

'생명' 전영목 '카드' 김대환 '자산운용'은 심종극 내정 '증권' 장석훈 대표 사장 승진

불황으로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 역시 지난해 3분기 누적당기순이익 976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3% 이상 감소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자산운용 전문가인 전 후보자가 삼성생명 새 수장으로 내정된 것은 300조 원 규모의 삼성생명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업황 부진 타파와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 수익 확대를 동시에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영목 삼성생명 대표 내정자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내정자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내정자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울러 삼성카드는 같은 날 김대환 현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을 새 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1963년생으로 올해 만 56세인 김 대표 후보자 역시 삼성생명 출신이다. 삼성생명 마케팅전략그룹 담당 임원과 경영혁신그룹장,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해 재무관리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카드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른 카

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무통인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경영 효율 극대화과 자산운용의 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자산운용 대표에는 심종극 삼성생명 FC영업본부장이 내정됐다. 심 내정자는 1986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생명 해외투자팀과 소매금융사업부장, 전략영

업본부장, FC영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장석훈 현 대표이사 부사장이 승진해 맡는다. 장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왔다.

50대 인사가 전면배치 된 것과 관련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장보다 젊은 분들이 새로 오신 만큼 새바람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도 삼성그룹의 '60세 정년론'이 어김없이 적용됐다. 기존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모두 1960년생으로 올해 환갑을 맞았다. 1963년생인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유임됐으며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새 대표 후보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연령·연차'보다 '성과·능력'... 삼성전자, 젊은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

부사장 14명 등 162명 승진

승진 규모 지난해보다 커

'발탁 인사' 24명으로 늘고

1970년생 부사장도 등장

피로한 조직에 활력 불어넣어

미래사업 선점하겠다는 의지



최용훈 부사장



최원준 부사장



김진해 부사장



송재혁 부사장

삼성 역대 임원인사

연도	시행일	구분	내용
2016년 정기인사	2015년 12월 1일	사장단	사장 6명 승진
	2015년 12월 9일	임원	294명 승진(부사장 29명, 전무 68명, 상무 197명 등)
2017년 정기인사	없음	-	2017년 5월 사업부문별 인사·국정농단 사태 관련 총수 부재
	2017년 11월 2일	사장단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장 7명 승진
2018년 정기인사	2017년 11월 16일	임원	221명 승진(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5명 등)
	2018년 12월 6일	사장단	부회장 1명, 사장 1명 승진
2019년 정기인사	2018년 12월 6일	임원	158명 승진(부사장 13명, 전무 35명, 상무 95명 등)
	2020년 1월 20일	사장단	사장 4명 승진
2020년 정기인사	2020년 1월 21일	임원	162명 승진(부사장 14명, 전무 42명, 상무 88명 등)

사업부 디자인 플랫폼 개발실장 최진혁, 기흥·화성·평택단지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심상필, 파운드리사업부 PA2팀장 정기태, 반도체연구소 플래시 TD팀장 신유균, 생산기술연구소장 양장규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부사장 승진자 중 최연소는 무선사업부에서 나왔다. 1970년생 최원준 부사장이 주인공이다. 최 부사장은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부사장 타이틀도 거머쥔다.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젊은 부사장은 전날 52세 나이로 무선사업부장에 오른 노태문 사장이다. 노 사장은 2012년 말 44세 나이에 부사장에 올랐고, 2018년 말 50세 때 사장으로 승진했다.

젊은 리더십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원준 부사장은 모바일 단말·칩셋 개발 전문가로, 2005년 '아미커스 와이어드' 테크놀로지'를 창업하고, 퀄컴에도 몸담은 바 있는 인물이다. 2016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을 상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LED개발그룹장 최용훈 부사장은 디스플레이 개발 전문가로 시네마 LED, 더 울 등 차세대 TV 팩터 개발을 주도했다.

네트워크사업부 미주BM그룹장 김우준 부사장은 미국 신규 사업 진출 및 5G 상용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한 통신 비즈니스

기반을 강화했다.

한국총괄 IM영업팀장 김진해 부사장은 모바일 영업 전문가로 5G 마케팅 차별화 및 국내 리테일 관리 고도화를 통한 한국 플래그십 제품군 매출 확대를 주도했다.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PA팀장 송재혁 부사장은 공정 및 소재개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V낸드 세대 전환을 성공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메모리사업부 디자인플랫폼 개발실장 최진혁 부사장은 SSD, e스토리지 등 메모리 솔루션 제품 컨트롤러 개발 전문가다. 주요 제품용 컨트롤러 개발을 통해 솔루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기흥·화성·평택단지 파운드리제조기술센터장 심상필 부사장은 파운드리 제조 기술 향상과 양산 경쟁력 극대화를 이끌었다.

파운드리 사업부 PA2팀장 정기태 부사장은 M램, P램 등 뉴메모리 분야 차세대 공정기술 전문가로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반도체연구소 플래시 TD팀장 신유균 부사장은 V낸드 선행제품 개발을 주도했다. 생산기술연구소장 양장규 부사장은 반도체 설비 기술 전문가로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극복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경영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젊은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1981년생 '최연소' 외국인 전무 반도체부문도 첫 여성 전무 탄생

인공인간 '네온' 개발 주역

NASA 출신 프라나브 미스트리

안수진, DS 부문 전무 승진

외국인·여성임원 확대 기초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



마미유 상무

삼성전자는 21일 단행한 임원인사에서 연령, 연차에 관계없이 24명의 인재를 과감히 발탁했다. 2019년 정기 임원인사와 비교했을 때 6명 늘었다.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여성 인력에 대한 승진 문호 확대 기초도 유지했다.

그중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싱크탱크팀장인 프라나브 미스트리(38)는 1981년생으로, 올해 전무 승진자 중 가장 젊다.

미스트리 전무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디어랩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에는 2012년 입사했다.

미스트리 전무는 삼성의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기어 세 모델을 제안했다. 또 사내 벤처 조직인 스타랩스를 신설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 발굴에 이바지했다. 스타랩스는 올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시회 'CES 2020'에서 AI 아바타 네온(NEON)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올해 최연소 상무 승진자도 외국인이다. 경영지원실 기획팀의 마미유 아포테카 상무(38)는 경영전략 및 M&A 전문가로 보스턴컨설팅(BOG), IBM 등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201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아포테카 상무는 AI 등 신기술 바탕으로의 변화 주도를 위한 잠재기업 인수합병에 공을 세웠다.

올해 승진된 여성임원은 전무 2명, 상무 5명 등 총 7명이다.



안수진 전무



송명주 전무

메모리사업부 플래시PA팀 안수진 전무(50)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첫 여성 전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2013년 말 상무에 승진된 이후 약 7년 만이다. 안 전무는 V낸드 소재 개발 전문가로, 세계 최초 6세대 V낸드 제품에 COP(Cell on Peri) 기술을 적용, 양산성 확보를 주도했다. 생활가전사업부 글로벌PM그룹장의 송명주 전무(49)는 가전 마케팅 전문가로,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의 판매 확대와 마케팅 데이터 체계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주도했다.

여성 상무 승진자 중 파운드리사업부 IP개발팀의 노미정 상무(48)는 보안 IP 분야 설계 전문가로, 복제 불가능한 보안 기술을 구현해 응용처별 보안 솔루션 확보에 기여했다.

생활가전사업부 UX 혁신그룹장 임경애 상무(44)는 냉장고 패밀리 허브 개발자로 활동하는 등 가전 UX 소비자 편의성 강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통한 제품 차별화에 노력했다.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의 김승연 상무(44)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갤럭시 브랜드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공헌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경제계 “정부, 유례없는 경영 간섭... 고용·투자 위축”

‘6년 임기제한·5%를 완화’ 파장

‘주총대란’ 불가피

3월 前 사외이사 76명 ‘강제교체’
셀트리온, 6명 중 5명 ‘발등의 불’

그동안 기업들의 반발을 몰고 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부터 본격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완화한 것이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사전 공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를 경영개입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관은 지배구조 등 기업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적연기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 월별로 거래현황을 약속 보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 5일 내 상세 보고해야 했던 것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상세 보고는 무분별한 주주권 행사의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만약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면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관)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처럼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를 일반 투자자보다 약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공적연기금과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3% 지분 보유 시 2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와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정안에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6년 이상 재직했던 사외이사들의 대거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로서 주총 전까지 새 사외이사를 찾아야 하는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연임 제한으로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영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당장 새로 선임해야 한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이 개별기업 중 가장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셀트리온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고 3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날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전경련 “경제상황 고려, 시행령 재논의를”
대한상의·경총 “스튜어디십 활용이 바람직”

경제단체들은 21일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시행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전무는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을 규정화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보고근거	자본시장법 제147조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 23	증권거래법	공시 및 투명성 규정 (DTR)	증권거래법 제21조 1항
보고대상		5% 이상		3% 이상	
보고의무자	보유자	보유자	실질적 소유자	보유자	소유자
보고기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회사에 사본 송부)	재무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회사	연방금융감독원 및 회사
보고기간	공적연기금(경영개입 목적 아닐 경우 월별보고)·일반투자자(5~10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일 이내	즉시 또는 적어도 4일 이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시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기업 미래 비전에 대해 조언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내부경영에 관한 사안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문제는 스튜어디십 코드 등 시장의 자율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개정안이 치관회의를 통과한 17일과 같은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 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스튜어디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업 이사 선·해임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시작,
새로운 희망으로 달리는 2020년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곁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보험가격 자율화 30년 됐지만...

관치금융에 멩드는 '소비자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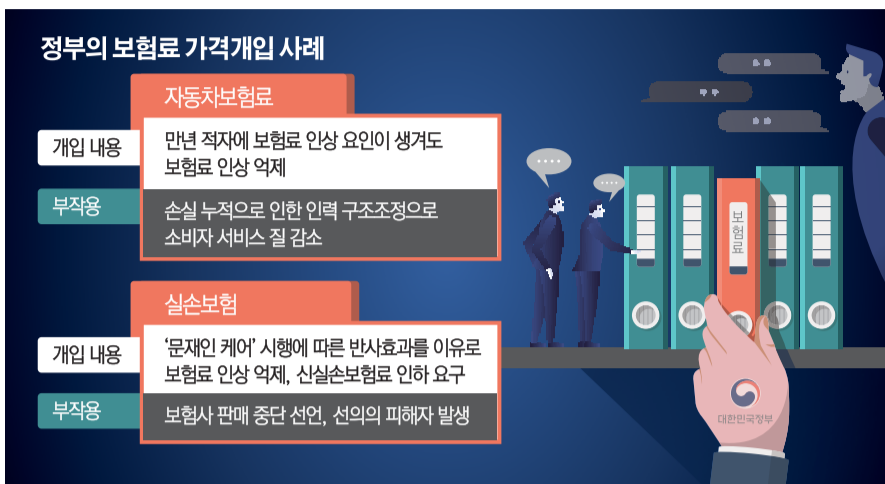
“달’이 마무리됐다.”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던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료 인상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손해보험업계 고위관계자가 내놓은 평가다. 보험료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줄다리기를 일종의 ‘거래’로 표현한 것이다. 당국은 보험료 인상은 ‘시장 자율’이라고 외치면서도 뒤로는 가격개입과 거래를 일삼았다. 보험료를 올리려면 당국이 내거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젠 간접 개입이 아닌 직접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 포퓰리즘’을 앞세운 관치금융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말로만 ‘시장자유’... 사실상 ‘직접개입’ = 명목상으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자율에 맡겨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험 산업에 시장 경쟁 원리를 정착 시키겠다”면서 단계적으로 보험 가격 자유화를 추진했다. 2000년에는 완전 자율화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당국이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계는 그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왜 보험사마다 인상이 거의 같겠냐”면서 “담합 등을 우려해 일부러 인상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자율”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특하면 담당자 호출... ‘관치의 산물’ 된 자동차, 실손보험 =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해 국민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총선을 앞둔 이번 인상 때는 정도가 더욱 심했다. 당국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보험개



금융당국의 두 얼굴

암묵적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
인상 언급 땀 임원 호출 입단속

지나친 시장개입 역효과

서비스 획일화·수익 저하 악영향
장기적으로 고객 피해 ‘부메랑’

발원 요율검증 절차는 통상 2주면 마무리되지만, 이번엔 한 달이 넘게 회신을 주지 않기도 했다.

당국 관계자가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을 호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담당자들은 특하면 당국의 소환을 받는다”며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호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회사 IR 때 자동차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만 해도 당국에 불려가 입소심을 당부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을 두고 ‘달’을 한 흔적도 보인다. 실손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 인상이 최대 9.9%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통상 보험료의 조정 폭은 손해율 등을 감안해 결정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이와 무관하게 동률 적용을 하라는 것이다. 정책성보험인 실손보험 흥행을 위해 갈아타기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애초 5% 인상을 요구했던 손보사들에 당국은 3%가량의 보험료 인상만 허용했다. 이마저도 특약보험료 인하 조건을 내걸었다. 손보사들은 내달 손해율이 양호한 특약 보험료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국의 시장 개입을 두고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료는 개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나 금융당국이 가장 가격 개입이 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관치금융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획일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연 기자 sjy@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오늘 금융수장들 ‘운명의 날’

금융권이 22일 신한·우리·KEB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 선고가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그룹 지배구조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선고(1심)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고위 임원 자녀와 외부 청탁자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은 조 회장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불구속되면 회장직은 유지된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대심집행에 가능성이 예상하고 있다.

같은날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추가 제재심도 열린다. 16일 첫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금감원은 30일 2차 제재심에 앞서 임시 제재심을 열고 의견 조율의 시간을 벌 예정이다. 이날 두 CEO에 대한 제재가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김범근 기자 nova@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겨울철 두툼 온맵시로 따뜻하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기

실내온도, 건강온도 20도

나쁨 좋음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美·이란 관계 고려... 청해부대 호르무즈 '독자 파병'



VR 軍 비행교육훈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해·공 3군 통합기계 동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스마트 국방혁신 부스를 방문, KT-1 VR 비행교육훈련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는 정세균 국무총리, 첫 번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뉴시스**

정부 "국민·선박 안전 최우선" 작전 범위 호르무즈 해협 확장 방위비 협상 등 美 협조 가능성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한국군의 독자 활동'으로 매듭지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파병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 지역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독자 파병안과 IMSC 참여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파병 결정의 배경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동맹국에 공동방위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정 과정의 가장 큰 고민은 '파병 방식'이었다. 미국과 이란 양국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해역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중동 지역에 있는 2만5000명 교민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렇다고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딜레마'였다.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독자 파병'

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외교적 상황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는 동맹국의 요구에 호응했다는 명분도 쌓을 수 있는 동시에 이란에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활동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에 이번 결정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환영의 뜻과 함께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란 역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일각에서는 한·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부응한 만큼 다른 미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 사례를 봐도 2003년 참여 정부 당시에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뒤로 미국이 6차회담 구상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파병과 다른 사안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자치경찰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문 대통령 '경찰개혁' 주문

"수사·행정경찰 분리 권한 분산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제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면서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에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심상정 "의원·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취업비리 전수조사 제도화 총선 원내교섭단체 목표"



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표가 21일 특권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 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 보좌관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겠다"며 "책임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혁해 정치의 틀을 바꾸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목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

총선을 겨냥해 제시한 4대 전략에는 △세대교체 △특권정치 교체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한국형 그린뉴딜' 전환 제안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심 대표는 "여성,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전면에서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혁신에서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모범국가가 되자는 것"이라며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전가족 안전보장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순간을 넘어 일생의 행복까지

한화손해보험

가족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 일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LIFEPLUS는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수출 반등한다더니... 20일까지 실적 0.2% 감소

반도체·석유 늘었지만 車·무선통신기기·선박 등 부진
1월도 마이너스 확실히되면서 14개월 연속 하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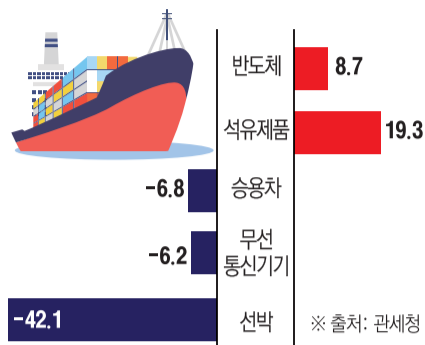
한국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데다 24~27일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대폭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2월에는 조업일수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달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4000만 달러) 줄었다. 조업일수(14.5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7억 7000만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았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8.7%, 석유제품은 19.3%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승용차(-6.8%), 무선통신기기(-6.2%), 선박(-42.1%) 등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국가별로는 베트남(6.7%), 일본(5.6%), 홍콩(9.9%), 중동(35.0%) 등은 호조를 보였고 중국(-4.7%), 미국(-4.9%), EU(-4.3%), 싱가포르(-15.8%) 등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지난달까지의 한국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5.3% 증가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행진을 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조업일수가 문제다. 지난해 2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고려한 1월 조업일수는 21.5일이다. 지난해 1월은 조업일수가 24일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일까지는 조업일수가 같았지만 1월 전체로 보면 2.5일이 적어진다. 통상 1일 조업일수에 따른 수출액은 20억 달러 수준이다. 단순 비교하면 50억 달러가 부족해진다.

정부는 내달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가 회복되고 석유제품 수출도 개선 추세에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조업일수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이달 상승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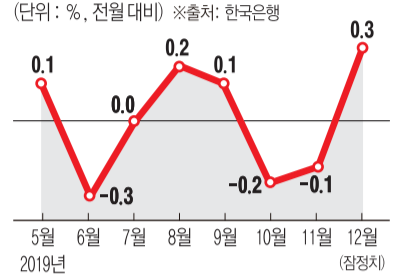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가 회복되고, 석유제품 수출도 개선 추세에 있다”며 “1월 전체적으로는 설 연휴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1일 평균 수출 기준으로는 14개월 만에 처음 작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무·오징어 가격 급등해 생산자물가 석달 만에 상승

12월 0.3% 오른 103.71
유가·근원 물가도 오름세

생산자물가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한국은행



무와 오징어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자물가가 석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도 오름세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 또한 상승 반전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3% 오른 103.71(2015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0.1% 상승) 이후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직전년 같은 달과 견줘서도 0.7%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7.4%, 수산물이 4.6% 올랐다. 특히 출하량이 감소한 무와 호박, 양파는 각각 30.7%, 49.3%, 30.2% 상승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동해안 수온상승으로 직전 달부터 어획량이 줄면서 냉동오징어와 물오징어도 각각 11.9%와 6.6% 올랐다. 공산품 중에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2.3%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상

승한 탓이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0.1% 상승 반전했다. 공급량량 조절에 모니터용 액정표시장치(LCD)가 0.8% 오른 영향이다. 폐기물 매립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전략, 가스, 수도 및 폐기물도 0.5%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이 0.2% 상승했다. 겨울철 성수기에 휴양콘도(10.8% 상승)와 호텔(1.9%)이 오른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올라 주거용 부동산관리도 1.1%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는 0.1% 올라 6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4%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향기로 맛보는 신상품 딸기 21일 전북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딸기 신상품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진열대에 놓인 국산 신상품 딸기의 향을 맡고 있다.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올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 5.3% 증가

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 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전망 2020'을 발표했다.

먼저 농가소득은 지난해 4265만 원에서 5.3% 늘어난 4490만 원으로 전망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44만 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농업소득도 2018~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295만 원, 농외소득도 1810만 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2029년이 되면 50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인구는 감소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224만 명, 농가호수는 0.7% 줄어든 100만 호가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지난해 45.5%에서 2024년 50.9%, 2029년에는 55.7%로 고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2024년까지 증가세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50조 4380억 원으로 지난해(50조 4280억 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배업은 0.4% 감소한 반면 축산업은 0.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 위반 땐 과태료 500만 원

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되나,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배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DI “민투사업 협약수익률, 관행적 결정 문제 많아”

국민 불편 초래하고 재정 낭비
“위험성·정부지원 적절히 반영
탈락자 보상해 경쟁률 높여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 유형·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약수익률이 관행적으로 동일사업 유형에 준해 결정되면서 민투사업이 국민 불편 내지는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김강수 선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형

민투사업(BTO)은 2007년부터 약 6% (이하 세후), 임대형 민투사업(BTL)은 2009년부터 약 4% 수준에서 협약수익률이 결정되고 있다.

민투사업 추진방식 외에 시설 유형이나 운영 위험은 협약수익률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사업 초기 운영수입 위험은 도로·철도사업이 항만사업보다 크고, 준공 후 운영수입 위험은 경기 변동에 따른 물동량 변화가 큰 항만사업이 가장 크다”며 “(하지만) 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BTL 협약수익률은 6% 전후에서 체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BTO는 운영기간이 증가할수록 협약수익률도 높아지는 등의 관계를 보였

다. 운영기간이 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운영·투자 위험도 확대된다.

위험 대비 협약수익률이 낮으면 투자유인 감소나 운영 중인 민투사업의 중단·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협약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사용자의 이용요금이 오르거나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헬세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종류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협약수익률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서는 협약수익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을 통한 경쟁 유도를 제안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동명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이끌 새 위원장에 김동명(사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사무총장 선

거에서 리빙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1580 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모든 정부 부처와 노정협의체 구성 △지역 노사민정 현실화 △각 업종 차원의 노사정 대화 △참여하는 노총의 위상 정립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보면 보장의 차이가 보입니다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암 진단비 감액기간없이 100%보장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후,
소액암, 유사암 제외)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도
주계약 보장으로 보장범위 확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본 상품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약필제 2019-03796호 (2019.12.03) 준법감시인확인필 CS 19-12-10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 한국 등 각국 방역 비상

중 사망자 4명...韓·日 등서 발병 잠복기 환자 방문시 무방비 우려
중제 앞두고 WTO '비상사태' 논의



의료진이 18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폐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우한/AFP연합뉴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태 파악을 위해 2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질병 전문가인 종난산 씨는 21일(현지시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사람 간 전염 현상이 확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 중에서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직접 가지 않았으나, 이곳을 다녀온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있다. 또 의료진 14명이 환자 1명으로부터 감염됐다.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진 가운데 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우한 폐렴 감염자 중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또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3일 입원해 호흡 곤란 증세로 치료받던 89세 남성이다. 그는 입원 후 일주일만인 19일 저녁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 신종 바이러스는 화난수산물시장이 감염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의 상당수가 이 수산물상 상인인 데다, 이곳에서도 수산물 외에 각종 야생동물도 도축·판매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우한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다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한 폐렴은 발생지인 우한을 넘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 등으로 퍼지고 있다. 또 태국, 일본, 한국 등 중국 밖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다. 이로써 21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우한에서만 198명이며, 중국 전체로는 총 219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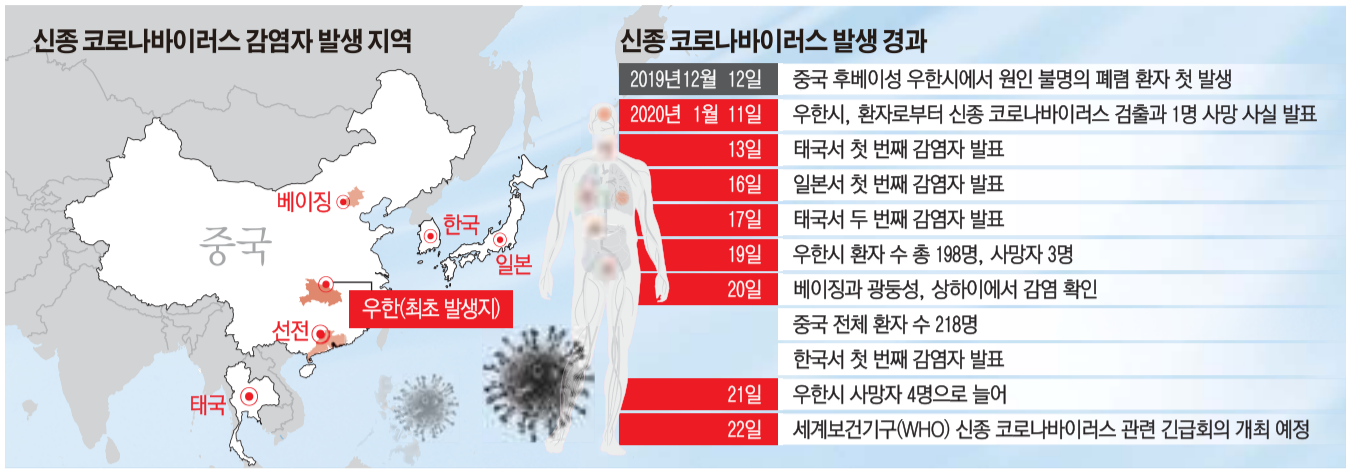
상황이 심각해지자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2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WHO가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사례는 콩고 에볼라바이러스(2018년), 지카 바이러스(2016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2014~2016년), 신종 플루(2009년) 등이다.

문제는 25일,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있어 이를 전후로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춘제를 전후로 40일 동안 귀향 및 관광을 위해 이동하는 인원은 약 30억 명(연인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춘제를 전후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이 급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추가로 입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없는 잠복기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한 폐렴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무증상 잠복기 환자나 증상이 있었으나 감기로 오해해 해열제 등을 먹고 열이 내린 경우에는 검역에서 잡아내기가 어렵다. 이에 한국 보건당국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우한 폐렴' 공포를 잠재우는 데 급급하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이런 시기에는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질병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사스 발생 20년 만에 또... '우한' 진원지 된 中

중국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진원지'라는 오명을 또 안게 됐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 발생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사스와 유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다시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어서다.

현재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중국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 '화난수산물시장'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서 판매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감염돼 '우한 폐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새로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충분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신선 고기를 선호하는 중국인의 취향에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습기 찬

검역 거치지 않은 고기 등 유통 신종 바이러스 위험 상시 노출

좁은 시장통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가금류에서 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과 접촉하면서 동물 체내에 있던 병원체가 인간으로 전염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2~2003년 사스 파동으로 본토와 홍콩에서 약 800명의 사망자를 내고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은 이후 전염병 모니터링과 감지에 큰 진전을 이뤘다. 중국 정부는 또 희귀 동물에 대한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신종 바이러스 출현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요리하는 방식이 인기가 높아 새 전

염병 출현 리스크를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시민은 블룸버그에 "완벽한 닭고기 수프를 만들려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냉동 닭보다 갓 도축한 닭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기초의학원의 왕웨이 단면역학 교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신선 고기나 야생동물을 선호하고 있어 동물과 사람의 접촉 빈도가 잦다. 그만큼 중국이 신종 바이러스 발생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이는 아프리카 산림에서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결과 에볼라가 발생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스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변종 2건이 거위 농장이나 가금류 시장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취임 3주년... 흑인 표심 공략 나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권운동의 상징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비를 깜짝 방문해 현화한 뒤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이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예정에도 없던 이번 방문을 놓고 미국 언론들은 탄핵 정국 속 흑인 표심 공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흙수저라면... 이젠 '캐네디언 드림'

WEF "소득 낮은 가정 출신, 美보다 加서 더 좋은 삶 누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도 좋다. 하지만 '흙수저'일 경우,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의 인생 역전이 더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사회이동성지수(GSM)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캐나다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다. '아메리칸 드림'보다 '캐네디언 드림'을 꿈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GSM은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신에 관계 없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82개국 중 사회이동성이 가장 활발한 순으로 나열한 결과, 캐나다(14위)가 미국(27위)보다 월등히 앞섰다. 하위 계층이 사다리를 타고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에서 저소득층이 중간 소득에 도달하는 데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6), 프랑스(6)보다는 빨랐지만, 캐나다(4), 호주(4)보다는 오래 걸렸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득 최상위 1%가 2018년 벌어들인 수입은 1979년보다 158% 더 많았다. 반면, 하위 90%는 같은 기간 24%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금전적인 이점 외에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빈곤 가정보다 훨씬 좋은 인맥으로부터 얻는 이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회자본 및 금융 자본 모두에서 이점을 누린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WEF는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개인의 잠재적 성장 기회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예측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각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ojung2@

114년 전통 런던 '리츠호텔' 주인 바뀔까

7억5000만 달러에 사우디 시드라캐피탈에 매각 검토

114년 전통의 영국 런던 '리츠호텔' 주인이 25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리츠호텔을 보유한 쌍둥이 억만장자 데이비드와 프레드릭 바클레이가 사우디아라비아 개인투자그룹인 시드라캐피탈에 호텔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FT에 "호텔 매각 협상 절차가 지난 몇 주간 진행됐다"며 "소수 투자자가 관심을 표명했지만, 제안 중 일부는 형제가 원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

했다. 바클레이 형제는 매각가로 최소 7억 5000만 파운드(약 1조1356억 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호텔은 가장 최근 실적인 2018년 매출이 4700만 파운드였으며, 세전이익은 700만 파운드였다. 카지노 임대사업을 포함해 이 호텔의 가치는 8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력한 인수자로 떠오른 시드라캐피탈 뒤에는 사우디의 유력 가문이 있지만, 그 가문이 어디인지, 또 이번 인수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쓸지 등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런던 피커딜리에 있는 리츠호텔은 1906년 '호텔왕' 세자르 리츠가 세웠다. 이 호텔은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 찰리 채플린과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 등 인기 스타들이 애용한 호텔로 유명하다.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윈스턴 처칠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샤를 드골 등 영국과 미국, 프랑스 수장이 협상을 벌인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다.

바클레이 형제는 1995년 이 호텔을 7500만 파운드에 인수하고 나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부활시켰다. 만일 매각이 성사되면 10배가량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도덕적 해이 낳는 낙하산 인사, 기관 생산성 떨어뜨려”

㉠ 재발방지 대책 및 제언 김종석 정무위 한국당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현재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낱감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장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장후보추천위원회가 좀 더 투명해져서 정부 외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지속해서 금융공기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기업의 방만 운영 문제를 꼬집으며 국회의 감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규제 개혁론자로 정평이 난 김 의원답게 규제보다는 금융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무력한 임원추천위원회’ 문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야당 시절 ‘낙하산은 독극물’이라며 비판했던 현 정부가 더 많은 낙하산을 쫓는다면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의 관행에서 비롯된 ‘챙겨주기식’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 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다고 보는지
 들 때 문제가 생긴다. 서로 일종의 먹잇감 다름이다.”

- 낙하산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직 정치권 인사라고 해서 무능하고 그런 건 아니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분명치 않다. 첫 관별식은 퇴직한 사람 자리 마련해주는 재할용 차원의 인사로, 그건 낙하산이다. 비합리하지 않다. 낙하산 개념이 주관적이다. 투자, 투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선을 긋기가 어렵다. 전직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객진산 기자 jinsan@

령이 장관 임명하듯이 하면 안 된다.”

- 사외이사제도는 왜 견제하지 못하는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의미가 없다. 민간기업은 사외이사가 중요하다. 금융공기업 사외이사는 정부가 대주주라 그야말로 자리 나눠주다. 그냥 사교 클럽이다. 업무 보고 받고 ‘잘 해라’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호해주는 정도다. 언론도 변호사도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입씨름이 벌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사전에 조율해서 올라간다. 사외이사가 문제 제기하면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는다. 민간위원도 낙하산이고 보은이다. 문제는 사외이사 선임을 기재부에서 한다. 공공기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공무원이 다 정하는 구조다. 국회의원이나 고관이 결정한다. 일종의 추천이다.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위에서 위원회에 올린다.”

- 낙하산 인사는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기관 자체의 생산성을 역행한다. 주의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지기도 한다. (기관장 자리를) 보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빼는 게 제일 좋다. 정부가 기은의 대주주일 필요가 없지 않다.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본다. 부도덕한 정치적 자기편 감싸기, 전리품 나눠주다.”

- 낙하산 인사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평가에 대해선
 “기관은 정부한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윤종원 행장이 오면 기존의 내부 승진자보다 실제 은행장이 될 수도 있다. 이전의 내부 승진자는 국회의원이 보기에 우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간단치 않다. 기은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기업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우려하는 건 노조가 뽀니를 부린다는 점이다. 국책은행은 항상 그랬다. 출근 저지해서 노조의 투쟁 수단이 되고, ‘노동이사를 받아라’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객진산 기자 jinsan@

투명하고 객관적 절차 거쳤다면 ‘출신·자격’ 문제 없어
 금융공기업 수장,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듯 하면 안돼

공공기관 사외이사 무의미한 일종의 ‘자리 나눠주기’
 ‘낙하산 논란’ 해소하려면 규제보다 자율성 보장해야

“뿌리 깊은 관행이다. 문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물의를 빚으면서 쫓는 게 심각한 문제다. 현재 사장이 임기가 있는데 중도하차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그런 경향이 있다. 전혀 그쪽 업무와 관련 없는데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차관급은 A 회사, 차관보급은 B 회사, 국장급은 C 회사로 간다는 등의 관행이 있다.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부, 보건복지부도 다 관행이 있다. 그걸 기금 정치권이 흔 공무원 임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다만 평이 좋지 않은데, 승진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을 위해 출구용으로 마련되는 건 낙하산이라 볼 수 있다.”

- 그런 기준에서 현 기업은행장은 낙하산인가?
 “기업은행의 경우는 윤종원 행장이 금융쪽에 역할을 한 적이 있나를 기준으로 볼 때 낙하산 냄새가 난다. 굉장히 고위층이었고 경제수석까지 했으니 은행장은 하향

이전된 것이다.”

-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움이 될까
 “지금은 엉터리다.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법을 보완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다.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기에 정부가 임명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임명 과정의 투명성이다. 기관마다 사장,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되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갑자기 CEO를 발표하는 게 문제다. 행정추천위 등을 열어서 제3자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 체제일까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장을 뽑는 게 낫다. 대통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격 강화 등 관피아 사전 차단... 금융수준 선진화해야”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사람이 기관의 장으로 임명돼야 하는지, 어떤 제도로 운영돼야 하는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직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역량이므로 금융공기업의 기관장도 인맥이나 연줄이 아닌 실력으로 걸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관장 자격 조건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가 근절돼야 금융수준이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관의 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직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 더 나아가 조직의 흥망까지 결정된다. 리더에 따라서 적자 혹은 흑자

정치권 출신 인사 경제대상 1호
 조직 전체 이해도 크게 떨어져
 리더 역량 따라 조직성과 좌우
 전문성·경험 갖춘 인물 뽑아야

가 결정되기 때문에 리더의 역량이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리더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리다.”

- 금융공기업의 장은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
 “금융공기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오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와야 경영이 정상화되고, 그 결과 수익이 올라가면서 투입되는 국민세금이 줄어든다. 금융공기업의 운영이 잘 되면, 거기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간다. 즉, 전문성 있는 사장이 국민 혈세를 절약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 낙하산 사장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사장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에 담으면 된다. 현재는 관련 법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성대 법학관 교수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에 대한 생각은
 “가장 경제해야 할 일이다.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큰 약점이다. 최근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기업은행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3번 연속 내부에서 행장이 배출돼 영업실적도 좋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원활하게 이행됐다. 아무 문제가 없던 조직에 갑자기 은행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관료 출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융노조도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과 경험의 결여다.”

-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몇몇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책은행 감사자격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명시했다. 이처럼 기관장 감사 자격을 강화하는 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기관장이나 이사회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내부통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준법감시 부서다. 준법감시 부서의 영향력이 커질 때 금융수준도 선진화될 수 있다.” 니경연 기자 contest@

이 있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고 임명과 절차에 관한 내용만 있지 자격에 관한 조항은 없다. ‘금융업 3년 종사’라는 식으로 자격 조건을 수치로 못 박으면 된다. 이럴 경우 실무적 경험이 두터운 인물이 사장으로 오게 된다.”

- 사장을 추천하는 공기업 내 임원추천위원회도 대부분 낙하산이다
 “임추위를 구성하는 비상임이사도 친정부 인사가 많다. 이런 이사들은 기관장

이 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추천이사제가 그 대안 중 하나다. 한 사람이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추진하기 어렵다. 노동이사 한 사람이 이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치권 인물이 공기업에 들어오는 것

女 상무 2명 발탁...삼성디스플레이도 유리천장 깬다

R&D·기술 각 부문 고른 승진
부사장엔 53~56세 '전진 배치'

삼성전기, 준법경영 강화 차원
법무그룹장 신임 상무로 임명



박향숙 상무



김선화 상무

삼성 계열사 임원 승진자 수

사명	부사장	전무	상무	마스터	전문위원	
					전무급	상무급
삼성디스플레이	3명	5명	12명	2명	1명	3명
삼성전기		2명	9명	1명		
삼성SDI		4명	13명	1명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들도 21일 일제히 2020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부사장 3명을 비롯해 20명 내외로 승진 규모를 확정했다. 성과주의 원칙이 두드러진 인사였다.

삼성전기에선 법무그룹장을 신임 상무로 임명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취지의 인사도 있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여성 임원이 나오는데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 인재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부사장 3명, 전무 5

총 12명이다. 특히 부사장 승진자들은 53~56세로, 삼성디스플레이는 50대 초반 젊은 인재들을 대거 발탁해 기술 기반의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무급 이상 고위임원 9명을 포함한 연구개발, 제조기술, 영업·마케팅 등 각 부문에서 고르게 핵심인력을 발탁했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리더십이 검증된 여성 임원 승진자 2명을 최초로 배출했다.

중소형사업부 지원팀 박향숙 상무는 원가회계·결산 전문가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의 원가구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 중소기업의 손익 개선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형사업부 개발실 공정개발팀 김선화 상무는 화질 전문가로 OLED제품의 공정 최적화 및 광(光)특성 개선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기는 전무 2명, 상무 9명, 마스터 1명 등 총 12명을 승진시켰다. 연령과 연

차보다는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중시해 회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중용했다.

먼저 미래 경영자 후보군인 전무 2명을 승진시켰다. 전자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시문 영업담당은 매출 확대와 거래선 다변화의 공을 인정받아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천진생산법인장을 거쳐 전장기술 조직을 이끌며 MLCC 제조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김상남 MLCC전장제조 기술그룹장도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9명이 상무로 승진했다. 컴포넌트 부문에서는 MLCC사업 위상 강화, 전장사업 가속화에 기여한 최창학 컴포넌트선행개발팀장, 이재연 양산QA그룹장, 박정규 전장영업 그룹장을 신임 상무로 승진시켜 개발·품질·영업 등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다.

모듈·기판 부문은 제품 R&D 경쟁력 확대에 기여한 안병기 카메라모듈개발기

룹장과 오창열 BGA개발그룹장을 신임 상무로 임명했다.

경영지원 부문에서는 인사와 재경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래순 인사기획그룹장과 이근목 경리그룹장을 신임 상무로 승진시켰다. 또 정보보호와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서경현 정보보호그룹장과 이항복 법무그룹장을 신임 상무로 임명하고 기술보안 보강과 사내 준법경영 공고화를 주도로 했다.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마스터 1명도 선임했다. 머신러닝 전문가인 조한상 영상검사설비그룹장을 신임 마스터로 선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연구개발, 제조현장 구축을 본격화했다.

삼성SDI는 전무 4명, 상무 13명, 마스터(Master) 1명 등 총 18명을 승진시켰다. 신규 거래선 확대, 차세대 제품개발,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한 김상균 상무, 박진 상무, 안병진 상무, 조용희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LG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출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1~2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0'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슬라이드인(Slide-in)' 레인지(왼쪽) 등을 선보인다. 슬라이드인 레인지는 빌트인 가전과 같은 외관과 업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구현한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최초로 공개되는 언더카운터(Undercounter) 와인 셀러와 서랍형 냉장고(오른쪽)는 아일랜드 식탁이나 조리대 아래에 빌트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진제공 각 사



美 CES·프랑스 수소회의·스위스 다보스포럼... 정의선, 3주 동안 지구 한 바퀴 '미래 전략' 운전대 쥐고 강행군

현대차 모빌리티 선점 등 추진
스페인 MWC도 참석 가능성

지난해 실적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연초부터 글로벌 현장경영에 몰두 중이다. 손에 쥔 카드는 '미래 전략'. 올해 들어 3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넘게 날아다니며 미래차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CEO 총회'에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석, 수소 사회 구현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소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저감 △일반 대중의 수용성 확대 △가치사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일본 토요타와 치열한 경쟁 중이다. 토요타가 거대 시장 중국을 겨냥해 수소전기차 저변 확대를 노리는 반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의 영역을 넘어 파워플랜트와 선박, 열차까지 수소 동

력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 부회장의 미래 전략 신호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언하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목적 기반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둘을 서로 연결하는 △허브도 공개했다. CES를 위해 미국을 왕복한 정 부회장은 프랑스 수소위원회와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에 잇달아 참가하며 또다시 유럽을 왕복한다. 약 3주 동안 그의 비행 거리만 따져보면 지구 한 바퀴(약 4만2000km)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글로벌 행보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기아차는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 모바일 전시회 MWC에 출사표를 던졌다. 카넥티드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올해 '북미 올해의 SUV' 타이틀을 거머쥔 기아차가 본격적인 유럽 시장 확대를 노리는 만큼, 이번 행사에 정 부회장의 참여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초대형선 투입 연료비 절반 감축 새 해운동맹, 시장 대응도 수월



배재훈(사진) 현대상선 대표가 올해 3분기 흑자전환을 자신했다.

배 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회에서 "올해는 디 얼라이언스(DI Alliance) 합류와 초대형선 투입으로 현대상선 재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전체적인 선박량 증가와 시장의 수요 증가, 운임 예측 등을 고려했을 때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4분기, 내년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8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

해 3분기에도 46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850%에 달했다. 배 사장은 흑자 전환 시기를 특히 3분기로 잡은 이유로 '디 얼라이언스 가입'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도입'을 들었다. 현대상선은 4월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합류한다. 종전의 2M(머스크·MSC) 얼라이언스에서는 정식으로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연합 변화와 시장 대응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2만4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4월 말부터 매주 1척씩 아시아-유럽 노선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연료비를 최

대 50% 안팎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사장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면 '규모의 경제'와 '고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만4000TEU급 투입으로 컨테이너당 연료비가 50%가량 줄어 들 것"이라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25%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이름 변경과 관련하여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배 사장은 "사명 변경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계속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나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꾼다면 현대고유의 이름보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쌍용차, 3년 연속 다카르랠리 완주

쌍용자동차가 '2020 다카르 랠리'의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며 3년 연속 완주했다.

쌍용 모터스포츠팀은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하라드와 키디야 사이 429km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쌍용 모터스포츠팀은 최종 53시간 59분 52초로 T1-3(이륜기용 가솔린 자동차) 부문 7위, 자동차 부문 종합 24위에 올랐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8년 티볼리 DKR, 2019년 렉스턴 DKR에 이어 올해 코란도 DKR로 '3년 연속 다카르 랠리 완주'에 성

공했다.

쌍용 모터스포츠팀의 오스카 푸에르테스 선수와 공동파일럿 디에고 발레이오 선수는 "코란도 DKR가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덕분에 TOP 25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ng@

삼성, 반도체 협력사 271곳에 417억 인센티브

삼성전자는 반도체 협력사 271개사에 총 417억4000만 원 규모의 2019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인센티브는 2010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대 규모의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반도체 사업장에 상주하는 1·2차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상생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설 연휴 직전인 22일 협력사 임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사기 진작은 물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올해로 11년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동반성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품질·환경안전, 인프라·설비 유지보수·IT 협력사 등 지급 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서민이

특별할인전

2020.1.2~2.3



구매 금액별 할인혜택

5% 할인
15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15% 할인
60만원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0만원 이상 구매시

5+1
추가증정

&

10%
추가할인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49,500원

클래식



-55,000원
49,500원

홍삼절편 (120g)



-55,000원
49,500원

다시, 남자



-67,000원
62,100원

다시, 여자



-87,000원
80,100원

홍삼대환



-150,000원
135,000원

• 온, 오프라인 동시진행 •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고객상담전화 1661-0308 더 많은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hamdahan.com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中企 경쟁력 강해질 것”

인터뷰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韓 벤처·중기 기술력 세계 최고…기술자 소통능력도 뛰어남
관료주의 문화·실패에 대한 가혹한 대우, 한국 기업의 약점
기술·상품이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문화 필요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기업 내 소통능력도 외국 기술자들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21일 서울 안국동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만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적 인프라 수준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 벤처기업 ‘메카’보다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이 실리콘밸리보다 기술력이 부족하고 소통능력이 낮다는 생각은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를 겪어본 나로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차 실장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글로벌 선두인 미국 엔비디아(NVIDIA)에서 마케팅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 작년 9월 공무원으로 이직

했다. 그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가전 전시회(CES)를 참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차 실장은 “올해 CES를 관통하는 화두는 지금까지 개발된 AI기술을 활용, 개인의 일상을 비롯해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중기부의 올해 정책목표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부터 이른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데이터센터는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활용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기업 활동 데이터를 모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데이터센터에 축적된 ‘빅데이터’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장 예측 등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통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준비를 거쳐 2021년 제조데이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차 실장은 “작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기술개발이나 영업 전략 수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실패 확률이 낮아지고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인 출신인 차 실장이 보는 한국 기업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실패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꼽았다.

그는 “실패하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보다 책임자를 색출하려고 든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신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업 임원에서 공무원으로의 변신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관료주의적 문화를 바꿔 보고 싶었다는 것. 중기부 요청을 받고 미련 없이 집을 썼다.

기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차 실장은 구글의 검색엔진을 예로 들었다.

그는 “AI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찬사를 받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알고보면 의외로 단순한 데다 놀랄 만한 기술도 아니다”라며 “기술적 한계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부단한 업데이트와 보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재의 구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실장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투자 후 나오는 기술이나 상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눈치가 빨라 상사나 조직이 원하는 것을 빨리 잡아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정확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구인들보다 소통력이 오히려 뛰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경쟁환경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놀랄 만큼 일을 많이 한다”며 “정책을 만드는 책임자로서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줄이고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강승수 한샘 회장 “7년 내 국내 매출 10兆”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 늘려
홈테리어 점유율 30% 목표
전담 디자이너 2500명 양성
동남아 등 글로벌 진출 확대



강승수 한샘 회장이 21일 서울 상암 사옥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샘

강승수 한샘 회장이 최소 7년 내 국내 시장에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은 21일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강 회장은 이날 취임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설명했다.

강 회장은 최소 7년, 빠르면 3년 이내에 국내 매출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 걸었다. 2018년 연결기준 한샘의 매출은 1조9284억 원이다. 7년 내 현재의 수배에 달하는 퀀텀 점프를 이뤄낼 것이라는 포부다. 매출 10조 원을 견인할 주요 사업은 리하우스다. 구체적으로 한샘은 리하우스 패키지 월 판매량을 기존 월 1000세트에서 연내 1만 세트까지 10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한샘의 리하우스 패키지 출고 개수는 3016개를 기록했다.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 개발을 위해 리하우스 디자이너(RD)도 올 해 2500명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RD 고용 인원은 500~700명 수준이다. 강 회장은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최근 매출이 정체하는 가운데서 7년 만에 10조 원을 할 수 있냐고 일각에서 의문을 갖는다”며 “그러나 리하우스 사업이 이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은 현재 2주 이상 걸리는 리모델링 시공도 최대 5일로 줄이겠다는 계획

이다. 시공 수준의 평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한 사람이 한 가지의 기능만 수행하던 것을 3~4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근무 효율과 급여를 다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샘은 △리하우스 △온라인 △키친 바호 △인테리어 △트윅 등 5개 사업본부 중심의 경영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본부는 자체 운영 쇼핑몰 ‘한샘몰’을 O2O 리빙 전문몰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한샘은 경쟁력 있는 외부 상품 입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 10조 원 매출, 홈인테리어 시장점유율(M/S) 30% 달성 △전략기획실 강화 신경영시스템 구축 △글로벌 한샘 기반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이제까지 의사결정이 최고경영자(CEO)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각 사업 단위별로 사업 본부장 중심의 의사결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기획실은 △경영기획 △경영지원 △기업문화 △대외협력 △정보시스템

△고객서비스 △제품개발 및 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한샘’을 위해 강 회장은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를 성장 중심으로 놓을 것으로 밝혔다. 그는 “2030년이 지나면서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래 50년은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어느 기업도 못 따라올 만큼 최강이 되는 것을 꿈꾼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중국 외에도 기존에 진출한 미국, 일본 시장을 더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그간 중국 사업에서 미진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만큼 시공 등에서 차별화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잘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중국 시장에서 속도가 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올해 중국 쪽은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SKT ‘엑스클라우드’ 시범서비스 확대

게임 수 3배 늘리고 한국어 자막·음성 지원 강화

SK텔레콤과 세계 최고 클라우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Project xCloud)’ 초반 인기로 힘입어 2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양사는 지난해 9월 한국 내 클라우드 게임 사업 공동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엑스클라우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MS에 따르면 ‘엑스클라우드’ 한국 이용자의 1인당 사용 시간과 재접속률이 미국, 영국 이용자 대비 각각 1.75배, 3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시범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SK텔레콤과 MS는 ‘엑스클라우드’ 게임 수를 기존 29종에서 85종으로 약 3배 늘리고 이 중 40여 종의 게임에 한국어 자막, 음성을 지원한다.

한국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게임이 40여 종에 이르며 검은사막, 테라 등 한국 게임 개발사가 만든 게임도 추가된다. 양사는 향후 한국어 지원 게임 수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엑스클라우드’ 체험 고객 규모를 기존 대비 대폭 늘려 모집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고객을 선발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가입 완료 안내 메일을 받으면 곧바로 ‘엑스클라우드’ 게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1명) △Xbox One X(3명) △Xbox 무선 컨트롤러(2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재훈 기자 yes@

과기부 ‘SKB-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공정경쟁·이용자 편의 등 조건 달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작년 5월 합병 작업이 개시된 이후 8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미 작년 12월 △공정 경쟁 △이용자 편의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합병을 허가했다. 이어 과기부통신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SO의 합병 변경 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사안은 시

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최종 승인을 환영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병 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써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드링크서 화장품까지... 이유있는 제약업계 '외도'

제약사들이 본업 이외에 다른 업종에서 '효자상품'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동국제약 등 주요 기업들은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 유산균, 숙취해소음료 등 외연 확대를 통해 효자상품을 키워내며 안정적인 캐시카우(수익창출원)를 확보하고 있다.

동국제약의 '마데카크림'은 코스메슈티컬 분야에서 대표적인 효자상품으로 꼽힌다. 동국제약의 대표 상차 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인 '마데카크림'은 2015년 '센텔리안 24' 브랜드로 탄생했으며, 이후 면세점, 홈쇼핑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매출을 견인했다.

동국제약의 화장품 사업 매출은 마데카크림 출시 첫해인 2015년 165억 원에 불과했지만 3년 만인 2018년 550억 원 규모까지 커졌다. 이는 동국제약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은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해는 H&B스토어 등의 판매채널로 다변화하며 더욱 가파른 성장세가 점쳐진다.

이 덕분에 화장품 등이 포함된 동국제약 헬스케어 부분의 매출도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로 헬스케어 부분 매출은 2015년 345억 원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며 2018년 1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종근당건강의 유산균 브랜드 '락토팩'도 빠른 기간 내 시장을 장악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론칭된 '락토팩'은 마케팅과 유통채널 다변화에 힘입어 국내 유산균 시장 점유율, 섭취율, 구매율 1위에 올라 있다. 락토팩은 특히 지난해 7월 매출 1000억



'외도'로 대박 난 제약사 효자상품 (단위: 원)

상품명	매출	분야	출시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2015년 165억 → 2018년 550억	코스메슈티컬	2015년
종근당 락토팩	2017년 393억 → 2019년 2000억	유산균	2016년
CJ헬스케어 컨디션	2015년 630억 → 2018년 854억	숙취해소	1992년
동아제약 박카스	2014년 2237억 → 2018년 2963억	드링크	1961년

※ 출처: 각사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출시 4년 만에 매출 5배 확대 전망 CJ헬스케어 '컨디션'·동아제약 '박카스' 등 전통 효자상품

원을 넘어서면서 유산균 브랜드 최초로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했다. 단일 브랜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매출액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이후 락토팩이 처음이다. 지난해 7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급속한 성장세로 지난해 연간 매출로는 2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유산균 강자의 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기존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은 숙취해소음료 분야의 '컨디션', 드링크 분야의 '박카스' 등도 꾸준히 매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CJ헬스케어의 '컨디션'은 1.5초당 1병꼴로 판매되며 27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왔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 변화를 통해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막고 있는 컨디션은 2000억 원(2018년 기준) 규모의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40%대(854억 원)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까지 누적판매량은 6억5000만 병으로, 2018년 한국콜마에 인수된 후에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아제약의 '박카스' 역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드링크제 브랜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961년 알약 형태로 발매된 박카스는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의 지속적인 상품 개발·유통망 확대 및 수출실적까지 더해지며 2018년 2963억 원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000억 원 매출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제약사들의 사업 확장을 통한 효자상품 탄생은 꾸준한 R&D와 다양한 유통망, 가성비 등 성장 포인트들이 확실했다"며 "그 덕분에 이들 제품은 당분간 꾸준한 상승가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 밖에 유한양행의 건강식품 브랜드 '뉴오리진', 광동제약의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광동약산' 등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가운데 이들 상품도 효자상품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LG생전 샤프란, 펭수 손잡고 "바다 오염 '미세플라스틱' 아웃"

향기 캡슐 없는 섬유유연제

LG생활건강이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의 신규 모델로 '펭수'를 발탁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연습생인 펭수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고향인 남극에서 헤엄쳐 온 펭귄이다. 솔직하고 당당한 말투와 특독 튀는 행동으로 10~40대에 이르는 폭넓은 팬층을 갖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남극의 청정 바다에서 살다 온 펭수와 바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일명 향기 캡슐)을 뺀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의 큰셉트를 접목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샤프란 아우라는 수(水) 생태계를 교란하는 향기 캡슐을 넣지 않고도 은은한 향이 오래 유지되도록 개발한 섬유유연제다.

향기 캡슐로 불리는 섬유유연제 속 미세플라스틱은 빨래 후 건조된 옷에서 향이 지속하도록 향 성분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펭수는 과정에서 상당수 하수로 유입돼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일부는 옷감에 붙어 피부와 접촉한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8월부터 모든 섬유유연제에 향기 캡슐을 넣지 않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펭수는 샤프란 아우라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기 가장 적합한 캐릭터"라면서 "논란이 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홈플러스 '빅딜가격 노트북' 다시 등판

3000대 한정 최저 29만9000원

홈플러스가 20만 원대 노트북을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가성비로 인기를 끈 '빅딜 가격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아이뮤즈(iMUZ) '스툼북14 아플로플러스'를 대형마트 단독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빅딜가격'은 홈플러스가 국내외 우수 협력사와 대규모 물량을 사전계약해 경쟁사가 따라잡기 힘든 가격에 내놓는 상품에만 붙는 이름이다. 지난해 포유디지털과 함께 '빅딜가격' 상품으로 내놓았던 아이뮤즈 '스툼북14 아플로'는 11~12월 홈플러스 노트북 카테고리 내 단일품목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전체 2000대 준비 물량 완판을 기록했다.

이에 홈플러스와 포유디지털은 기존 모델의 저장공간과 SSD 확장 슬롯 호환성을 강화한 제품 3000대 물량을 새롭게 준비해 기존과 같은 가격에 내놓기로 했다.

'스툼북14 아플로플러스'는 인텔 아플로 레이크 CPU, 4GB RAM, 64GB eMMC를 갖춘 14인치 노트북으로, 1920×1080 Full HD 해상도와 IPS 광시야각



패널을 갖춰 풍부한 색감을 보여준다.

전국 홈플러스 점포 및 온라인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정상가는 31만9000원, 마이홈플러스신한, 홈플러스삼성, 신한, 삼성 카드 결제 고객은 29만9000원이다.

조세중 홈플러스 대형가전팀 바이어는 "학생과 직장인이 꼭 필요로 하는 스펙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실속 있는 가격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 기업과 협업해 가성비 높은 상품을 지속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설 명절 상차림 피코코로 똑딱!

이마트가 간편하게 제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피코코 간편식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26일까지 피코코 제수용품 52종 중 총 2만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또 400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치하고, 설비를 확충해 EHS(환경, 보건, 안전) 대응 및 시설 관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 센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애경그룹 종합기술원 유지는 인천시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최첨단 미래 기술 연구의 메카인 송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연구중심 도시로 본격적 도약을 하기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여 애경그룹이 송도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 안재석 사장은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 설립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룹의 주력 사업인 화학, 생활용품, 화장품 분야에서 퀀텀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애경그룹, 송도에 종합기술원 설립 "화학·생활·화장품 R&D 요람으로"

2022년 하반기 준공

애경그룹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클러스터 부지를 3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애경그룹은 해당 대지에 송도 '종합기술원(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애경그룹은 21일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B 구역 내에 있는 부지 2만8722㎡를 3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번 토지매매 계약은 애경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애경유화, 애경산업이 각각 6:4의 비율로 투자했다. 송도 종합기술원은 전체면적 4만3000㎡ 규모로 설립할 예정

이고, 2021년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지난해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국내 기업의 연구소 유치에 위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냈다. 애경그룹이 매수 신청을 했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이후 부지 활용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토지 매매를 계약했다.

애경그룹은 경영혁신의 목적으로 송도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기초, 원천, 미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전달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소재개발 △독자기술확보 △친환경&바이오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을 가속할 예정이다.

비비안, 올해 속옷 컬러 트렌드는 '블루'

속옷 브랜드 비비안은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트렌드 컬러 '블루'를 반영한 브래지어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비안은 차분하고 세련된 블루 컬러에 기하학 패턴을 더해 깊은 바다를 연상시킨다. 섬세한 레이스가 가슴 전체와 밑가슴 둘레를 넓게 감싸줘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와이어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레이스가 말려 올라가는 불편함도 보완했다.

비비안 감지영 디자이너는 "매 시즌 트렌드 컬러와 디자인을 분석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색채기업 팬톤(pantone)은 2020



년 대표 컬러로 '클래식 블루(Classic blue)' 컬러를 선정했다. 2018년에는 울트라 바이올렛, 2019년에는 리빙 코랄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바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메이저 무대 선 '패션 코리아' ... 파리지앵도 반했다

글 쓰는 순서

- ① K-푸드, 글로벌 식탁 메뉴 바꾼다
- ② 세계인의 지갑 여는 K-쇼핑
- ③ K-뷰티, 전 세계 여심을 홀리다
- ④ K-패션, 뉴욕·밀라노 런웨이 접수
- ⑤ 글로벌 신약 주권 도전하는 K-바이오

16 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6구에 위치한 복합예술문화공간인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는 한섬의 '시스템'·'시스템옴므' 단독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이어 파리 마레지구에서 한섬이 운영하는 편집숍 '통그레이하운드 파리' 매장에서는 시스템·시스템옴므 쇼룸이 23일까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 200여 명의 패션 업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한다.

한섬은 라파예트 백화점에서 장기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소비자들과 만나며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섬의 시스템, 시스템옴므는 '2020년 가을겨울(F/W) 파리 패션위크'에 동반 참가 소식도 전했다. 국내 토종 패션 브랜드 남녀라인이 3회 연속으로 파리 패션위크에 동반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 패션위크는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로, 패션·유통 바이어들에게 출시 예정 신제품을 소개하고, 미리 판매하는 '프리미엄 패션 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한섬은 패션위크 때 홀세일(wholesale, 도매) 형태로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켰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섬 '시스템·시스템옴므' 3회 연속 파리 패션위크 참여 프리미엄 마켓 참여 수출도

음식(K팝)·문화(K드라마) 등은 개인 선호에 따라 쉽게 소비될 수 있지만, 패션은 각 지역의 기후, 인식, 체형,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만큼 다인종 국가가 아닌 한국 브랜드는 세밀화한 지역화에 다소 취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해외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며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K패션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자리 잡은 데 이어 패션의 본고장인 유럽과 북미지역까지 진출하며 세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삼성물산은 국내 패션 브랜드가 유통채널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한 것과 달리 디자이너 브랜드 '준지(Juun. J)'를 앞세워 해외 컬렉션에 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해외로 나갔다.

준지는 해외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한 결과 현재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홍콩 등 30여 개국에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해롯백화점(런던)과 SAKS(뉴욕), 갤러리 라파예트(파리)를 비롯해 편집 매장 레갈레어(파리), 조이스(홍콩&중국), 오프닝세레모니(도쿄) 등에도 입점했다.

여성복 브랜드 '구호'는 2016년 뉴욕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꾸준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영국 하비 니콜스, 캐나다 홀트 렌프 등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의 주요 유통 바이어 대상으로 세일즈 쇼룸을 운영하고, 현지 뉴욕커들에게 직접 구호의 브랜드 정체성을 알리



K-패션 브랜드 해외 진출 현황

이랜드	1994년 중국 진출 후 5000여 개 매장 운영 중
LF '헤지스'	2007년 중국 진출 후 420여 개 매장 운영 중 2013년 대만 진출 후 현재 퍼시픽 소고 총호점에 단독매장 운영 중 2017년 베트남 하노이 진출 2019년 베트남 호찌민 진출, 2021년까지 5개 매장 추가 계획

삼성물산	2007년 '준지' 파리 컬렉션 진출 2013년 '준지' 정옥준 디자이너 파리 의상조합 정회원 추대 2019년 12월 기준 뉴욕·런던·파리·밀라노·홍콩 등 30여 개국서 100여 개 매장 운영 중 2016년 '구호' 뉴욕 시장 진출 2019년 북미·유럽·아시아 지역에 바이어 대상 세일즈 쇼룸 운영, 뉴욕 소호에 팝업 스토어
-------------	---

신세계인터내셔널	2011년 '보브' 중국 진출 후 40여 개 매장 운영 중 2016년 '지켓' 중국 진출 2019년 '스튜디오 톰보이' 중국 진출 후 8개 매장 운영 중, 올 상반기 3곳 추가 계획
한섬 '시스템' '시스템옴므'	2014년 파리 '통그레이하운드 편집숍' 오픈 2019년 F/W 시즌부터 3회 연속 파리 패션위크 참가



① 삼성물산 준지 2020년 F/W 파리 컬렉션
② 한섬 시스템 2020년 파리 패션위크 화보
③ 중국 티몰 내 이랜드 종합관 홈페이지 사진제공 각사



이랜드, 패션 해외 진출 '1호' 中 유통시장 변화 빠른 대응 25년 만에 5000여 개 매장

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영·유아 브랜드 '소플라'와 '포인포베이비'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LF의 개주얼 브랜드 '헤지스'도 2007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국내 브랜드 최초로 대만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고 2017년부터는 베트남까지 진출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4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대만에서는 최대 백화점이자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대부분이 입점해 있는 퍼시픽 소고(Pacific Sogo)의 본점인 충호(Chung-Hsiao)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LF는 올해도 점진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하노이 진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호찌민으로 무대를 확장했고 2021년까지 호찌민 주요 쇼핑몰에 5개 매장을 추가로 열어 베트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1년 여성복 브랜드 '보브'를 시작으로 2016년 여성복 브랜드 '지켓', 2019년 '스튜디오 톰보이'까지 3개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선보였다. 보브는 중국 내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현재 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스튜디오 톰보이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과 시안에 각각 위치한 SKP백화점에 단독 매장을 잇달아 오픈했다. 이후 세를 확장해 중국 내 주요 고급 백화점과 쇼핑몰에 매장을 오픈해 현재 총 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측 관계자는 "스튜디오 톰보이는 중국 대표 쇼핑몰인 티몰 글로벌에서 판매하며 실제 매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고객의 소리가 많아져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 오픈한 것"이라며 "중국 유통 바이어들 사이에 톰보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주요 도심 지역 최고급 백화점에 빠르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삼성물산 '준지' 컬렉션 공략 30여 개국서 100여 개 매장 '구호'는 뉴욕서 입지 확대

이랜드 측은 "25년 동안 중국의 트렌드 변화와 고객 특성, 현지인들이 원하는 상품 특징 등 수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는 상품 디자인, 마케팅, 물류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랜드만의 중국사업 노하우로 집약됐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특히 중국 내 한 가정 두 자녀

"K-패션, 해외시장서 성공하려면 가격 경쟁력·브랜드 파워 키워야"

전문가 '글로벌 공략' 조언

해외 무대에 진출한 K패션은 아직 '주연'이 아닌 '조연'이다. 해외 브랜드를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한 사례를 제외하고 해외 패션 시장에서 톱 브랜드로 내세울 만한 국내 토종 브랜드는 아직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시장조사기관 유폴모니터에 따르면 해외 패션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K 브랜드는 이태리 기반의 '힐라'다. 힐라는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0.1%다.

전문가들은 '가격경쟁력'과 '브랜드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에 진출한 K패션 브랜드는 대개 고가 라인인 만큼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력을 인정받기 전 가격경쟁력에 밀릴 수밖에 없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 해외 시장에서 가격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다. K패션이 해외무대의 주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 브랜드가 책정한 가격을 해외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란 얘기다.

정부는 K패션이 해외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패션위크 참여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를 해마다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0 S/S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아시아 12개국 바이어 135명을 초청해 참여 디자이너들이 수주상담을 받았다. 아울러 해외 패션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소통하며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멘토링 세미나도 진행했다.

브랜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별 브랜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섬



LF '헤지스' 베트남 호찌민 매장 모습.

은 제품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3개월)보다 최대 5개월 더 앞당겨 한 시즌 앞서 제품을 선보이는 선(先) 기획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섬은 이를 위해 2018년 시스템·시스템옴므의 디자이너 인력을 30% 늘렸고, 지난해에도 인력을 최대 50% 확대했다.

이랜드는 중국 유아동복 시장에 진출하며 제품 품질, 현장 서비스, 인테리어, 제품 진열에서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높아져가는 중국의 엄격한 GB테스트(품질 기준)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정재우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K패션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소비자에게 K패션을 알릴 기회를 만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쇼룸, 전시회, 팝업스토어, 런웨이 등이 그런 기회"라며 "K패션에 대한 해외 시장의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도전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퇴보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퇴직연금이 답이다”

펀드를 말한다 ②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국내 투자자 단기매매 선호 영향 해외투자·채권·ETF 대비 역성장 퇴직연금 200兆 거대 자금 형성 펀드시장 도입 땀 주식시장 발전

“적극적인 투자와 공정한 기업 경영, 시장의 발전이라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선순환이 안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 기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를 만났다. 씨티은행과 동양종합금융, 스탠다드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 30년 넘게 금융시장에 몸을 담은 베테랑이다. 그는 ‘국민의 평생 자산운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용 파트너’라는 자사 운용철학처럼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민 대표는 “외국인들은 장기투자자로 한국주식을 많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에 포커스를 맞춰 단기매매보다는 장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퇴보에도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최근 10년간 해외투자자와 대체투자, 채권과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른 영역들은 크게 성장했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만 퇴보했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퇴직연금을 펀드시장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펀드시장이 발달한 나라는 연금자산이 장기투자 근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빼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장기투자 자산이 없다”고 짚었다.

또 “현재 퇴직연금에 200조 원 정도 큰 자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 펀드시장에 들여온다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끌어준다면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자본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초 이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고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있다”며 “2월까지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외와 대체, ETF 등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글로벌 주식이나 리츠상품, 자산배분형 상품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주로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자극해 공정하게 경영하도록 하면 지배구조도 개선되고 시장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이런 선순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 모두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경쟁에 ‘깜짝 등장’

계열사 통해 지분 8.28%로 올려 2대 주주로 경영참여 가능성 커져 500억 이상 차익실현 가능성 업계, 향후 지분 추가 매입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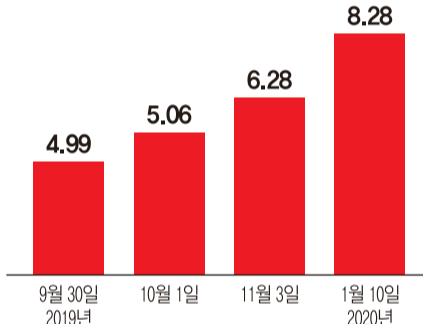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반도건설이 핵심 키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건설 측이 동원 가능한 모든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계열사를 통해 지분율을 추가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KCGI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경영 참여 가능성은 물론 당초 목표인 차익 실현을 통한 수익도 가능한 만큼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도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최근 한진칼 지분율을 8.28%까지 끌어올리고 지분 매입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다. 경영 참여를 선언할 경우 직접 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을 낼 수 있다.

한진칼 지분을 가장 많이 매입한 반도건설 계열사는 한영개발로 지분 3.82%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71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대호개발은 지분 3.62% 매입에 684억 원을 투자했고 반도개발도 0.62%를 가지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9월 이들 계열사 아파트의 분양 대금이 입금되자 한 달 뒤인 10월부터 한

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변화 (단위: %)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3개 계열사 통해 지분 매입

진칼 지분을 사들였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3위 건설사로 주로 자체 분양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 권 회장의 무차입 경영 기조로 현금 보유량이 많은 데 비해 부채 비율은 낮아 추가 매입 여력은 충분하다.

실제로 반도홀딩스, 반도건설, 반도개발, 대호개발, 한영개발 등 반도건설 주력 계열사들의 유동자산(별도재무제표 기준)을 모두 합치면 2018년 말 현재 1조 29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회사를 합치면 자산은 4조 원을 넘어서지만 부채는 700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권홍사 반도 회장의 동생인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회장의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성형 기자 carlove@

여기에 현재의 지분율로는 조원태 회장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과와의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 만큼 추가 매입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권홍사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의 강성부 사장 등과 미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추가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경영진은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누구든 만나서 향후 전략과 조연을 구하겠다는 생각이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업인 건설업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한진칼) 지분 매입에만 나설 수는 없다”면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계속 지분 매입에 나설지는 내부에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 주춤까지 시간이 있고 지분 경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반도건설이 당초 목표인 차익을 보고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반도건설은 21일 종가 기준 만으로도 5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구성형 기자 carlove@

코센, 3자배정 대상자 변경 ‘유증’ 재추진

공시돋보기

1년간 규모 축소 등 정정공시 9건 불성실공시 지정돼 투자 신중해야

강관 제조업체 코센이 3자배정 대상자를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유상증자에 나선다. 하지만 1년여를 끌어온 데다 코센이 과거 유상증자 철회와 지연 등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도 지정된 이력이 있는 만큼, 호재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센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내달 28일을 납입일로 진행하던 유상증자의 대상자가 가이아오닐과 양홍선 씨에서 싱가포르 금융사인 AUGRAINS CAPITAL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증자 규모는 200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버뮤다 국적의 래플스 인스트럭처 홀딩스(Raffles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 이하 래플스) 지분 27.98%를 82억여 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래플스는 2007년 싱가포르 SGX 거래소 상장 및 자회사를 설립해 2015년까지 천연자원 탐색업 및 직물가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2018년 5월부터는 진행 중인 사업 처분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간산업 투자의 사업으로 변경했다. 중국 청두에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하며 중국 내 기간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래플스 인수 대금은 코센의 유상증자에 AUGRAINS CAPITAL이 현물출자해 신주 742만6261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82억43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현금 900만 SGD(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8억 원)를 납입한다. 다만 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납입일인 2월 28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센이 정정한 이번 유증은 벌써 1년여를 끌어온 것이다. 앞서 작년 2월 대한제약과 우주유엔드비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최초 보고했다. 하지만 납입일은 4월에서 10월로 두 번이나 연기됐고 이어 발행 대상자가 가이아오닐과 양홍선 씨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납입일은 11월에서 12월에 이어 해를 넘긴 2월로 또 연기됐고, 그러다 지금의 발행 대상자와 규모로 축소·변경됐다. 이와 관련한 정정공시만 9건에 달한다.

게다가 코센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도 여러 번이다.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납입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면서 코스닥시장분류로부터 벌점 5점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1월에는 전년도 말부터 추진했던 주주우선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고 3자배정으로 변경하면서 벌점 4점에 해당하는 제재금 1600만 원을 부과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핸디소프트, 네트워크 사업 종료... 구조조정 ‘막바지’

핸디소프트가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영업 종료로 기점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핸디소프트는 이날 말부터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을 정지한다. 해당 사업부문은 2018년 말 기준 178억 원,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핸디소프트는 지난해부터 다산과의 문제로 영업 종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최대주주였던 다산 그룹으로부터 받은 거래다. 네트워크 사업부의 재고 문제와 수익성 악화 때문이

다. 네트워크 사업부문은 2018년 말 기준 1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사업 수주에 따라 묶이는 자금과 악성 재고자산 우려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18년 말 기준 189명 이던 직원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97명으로 절반가량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퇴직금 등 일시적 인건비는 지난해 2, 3분기에 대부분 반영됐다. 100억 원 규모로 수익성 개선의 발목을 잡던 판매 및 관리비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에는 네트워크 사업 부문의 정리와 함께 주력 부문인 소프트웨어 부문의 영업성 개선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핸디소프트 소프트웨어 부문은 2018년 242억 원의 매출과 42억 원의 영업손실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82억 원의 매출과 4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손실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손실 반영은 올해 안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오산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관계사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박기영 기자 pgy@

bithumb 빚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1월 21일 17:00, KST)

종류	종류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등락률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캐시	390,200	10,200	(2.7%▲)
	모네로	74,200	50	(0.1%▲)
이더리움 가격	리플	268	2	(0.8%▲)
	비트코인골드	13,100	910	(7.5%▲)
대시	라이트코인	65,600	350	(0.5%▲)
	이더리움클래시	9,960	455	(4.8%▲)
	퀀텀	2,208	30	(1.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공시지가만 8.2조... '땅 부자' KT, 정비사업 '큰손'

통신시설 구축하며 땅 사들여 유희지로 정비사업 진출
KT광진지사 부지에 '자양1주택 재건축 사업' 대표적
염리동·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 KT빌딩 매입에 사활

'땅 부자 공기업'으로 꼽히는 KT가 도시정비사업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KT와의 관계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사업장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KT가 가진 전국의 토지는 약 613만㎡, 건물 면적은 363만㎡다. 통신시설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전국에 땅과 건물을 확보해둔 덕분이다. 이들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지난해 공시가격으로만 따져봐도 8조2501억 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KT는 회사가 소유한 빈방을 활용해 도시정비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KT광진지사 부지에서 진행 중인 자양1주택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 부지 7만8147㎡ 가운데 6만384㎡(77.2%)가 KT 땅이다. 개발 시행도 KT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가 맡았

다. 이곳엔 1360가구 규모의 아파트뿐 아니라 호텔과 오피스텔, 광진구청 신청사 등이 들어선다. 한강변과 가까워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유망주'로 꼽힌다.

KT는 종로구 세운지구 재정비사업에도 참여했지만 여기서 싹싹을 봤다. 특히 세운4구역에선 사업 부지의 15%를 차지한 큰손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자 KT는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에 불참한 데 이어 사업 부지 일부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일대 땅값이 최근 3.3㎡당 3000만 원 선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적잖은 시세 차익을 봤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도 KT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KT가 지칭 이것저것을 놓으면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어서다.

자양4구역 재건축 사업	사업 부지 77%를 KT가 소유. KT 자회사(KT 에스테이트)가 개발 시행사로 참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사업 부지 15%를 KT가 소유. 분양 참여 절차였으나 조합원 분양 불참. 토지도 매각 증으로 알려졌다
염리동 재개발 사업(추진)	사업 부지 한가운데 KT 마포빌딩 위치. 이를 수용 안 하면 재건축 사실상 무산. 추진위에서 매각 조건 협상 중
청량리 8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발 지역과 KT 청량빌딩 바로 맞닿아 있으나 KT 청량빌딩은 구역 지정 과정에서 존치 결정. 조합에선 청량빌딩 매입 여부 검토 중

서울 마포구 염리동 KT 마포빌딩 전경.

최근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가운데 KT의 그림자가 가장 짙은 곳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이다. 이 지역에선 최근 추진위 원회를 꾸리고 염리동 82-1번지 일대 6만7495㎡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14개동을 신축해 1686가구가 입주하는 게 목표다.

문제는 염리동 한가운데 있는 KT 마포빌딩이다.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준석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KT 빌딩이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으면 6개동을 못 짓는다. 단지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선 2015~2015년에도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KT 빌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정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국장은 "이번엔 일정 수준 이상 주민 동의율을 채우면 KT에서도 부지 매입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도 KT 청량빌딩 매입을 두고 장고 중이다. KT 청량빌딩은 청량리8구역에 둘러싸여 있다. 2010년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될 때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돼 존치가 결정됐다.

조합에선 KT 청량빌딩을 사들여 단지를 넓히면 일반분양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청량리8구역 조합 관계자는

"KT 측에서 제시하는 매각 가격과 경제성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선 시(市)까지 나서 KT에 전화국 이전을 제안했지만 KT의 '버티기'로 무산됐다.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양정동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연산전화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재개발 단지 앞을 지나는 2차선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다.

주변 재개발 단지에 2000가구가 넘게 입주하는 데 2차선 도로는 너무 좁다는 게 부산시 등의 판단이었다. 당시 부산시와 연제구 등에서 충분한 매각 비용뿐 아니라 이전 부지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정비사업자 입장에서 부지를 넓혀 개발하는 게 사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될 수 있으면 KT와의 협상을 성사시켜 재개발의 큰 그림에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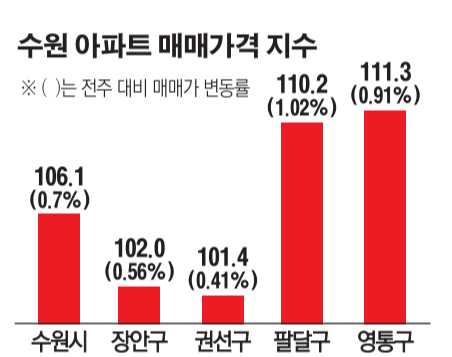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속속 '10억' 돌파... 날개 단 수원 집값

규제지역 비껴가며 '풍선 효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짜리 아파트가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정부의 규제 칼날을 비껴가면서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데다 교통망 확충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며 따라오는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수원시 영통구 자연안힐스테이트 전용 84㎡가 11억600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작년 11월 10억6000만 원 거래됐으나 12·16 대책 이후 오히려 1억 원이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같은 지역의 래미안광교 전용 97㎡도 4일 최고가(10억 원)에 거래됐다. 12·16 대책 이전인 작년 11월(9억2500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영통구뿐만이 아니다. 수원 팔달·권선구 등 수원 지역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1월 2주차(13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영통구가 0.91% 상승한 가운데 팔달구는 1.02%, 권선구는 0.41% 올랐다.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데다 최근 교통망 확충 소식까지 연달아 전해진 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영통·팔달구 아파트값이 본격 상승세를 탄 것은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신설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최근에는 권선구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수원 영통구 T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호가 실제 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측면도 있는 만큼 묻지마 추격 매수는 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GS건설, '레고 주택' 글로벌 모듈러사 3곳 인수

폴란드 '단우드'·영 '엘리먼츠' 등

GS건설이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선진 모듈러 업체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사업 발굴을 위해 전담팀까지 꾸렸던 허윤홍 GS건설 사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 사장은 허장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말 사장으로 승진했다. 모듈러 주택은 주택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명 '레고 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GS건설은 21일 폴란드 비아위스트코에 위치한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단우드 본사에서 허윤홍 신사업부문 사장과 야첵 스페츠키 EI(Enterprise Investor) 회장, 야로스와프 유락 단우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약 1800억 원이다.

이에 앞서 허 사장은 16일 영국 소재의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 엘리먼츠와 인수를 마무리했다. 미국의 철골 모듈러 전문기업인 S업체도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로 2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삼양식품 회장〉

‘50억 횡령’ 전인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페이퍼컴퍼니로 10년간 회삿돈 빼돌려... 사회적 기대 저버렸다”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확정

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사진)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빼돌린 회삿돈을 김 사장의 급여,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9900만 원에 이른다”며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 직책으로서 총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현 기자 int1000@



“떡국 드셔야죠”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1일 경기 팽택시의 한 떡집에서 상인이 분주하게 가래떡을 뽑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결론

檢 “이주비 뇌물 아닌 계약 내용” 과장광고 혐의도 ‘공소권 없음’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항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하고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 등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이주비 등 조항 측에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과 같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한 것은 뇌물이 아닌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int1000@

28일부터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 형사·공판부 전환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 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덧글 조작 프로그램〉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선고공판 취소... 변론 재개 결정

개발 승인했는지 ‘공모’에 초점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덧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이어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덧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에 집중했다”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초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같은 달 1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용 기자 deep@

“고향길 24일 오전 9~10시 피하세요”

귀경길은 25일 오후 2~3시 혼잡 국토부, 설 연휴 교통대책 수립

올해 설 고향 가는 길에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10시, 귀경길에는 설 당일인 25일 오후 2~3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귀성길에는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먼저 정부는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또 설 전·후 3일간(24~2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설에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41.4km)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27일까지 버스전용 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 달 새벽 1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공공임대 늘리면 투기 막을 수 있어”

박원순 시장 “임기 중 40만 호 확보...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며 “당장 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급 물량을 늘려가면 언젠가는 근원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은 이른바 불공정·불평등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쓰지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 모아서 기업들에 싼값으로 공장 용지를 제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지는 것이 국민공유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어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면서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이부터 부모님까지 보험 하나면 걱정 끝!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은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은 '간편가입·건강증진·종신보험'으로 추려진다. '성장' 보단 '생존'에 초점을 맞춘 보험사들은 보험손익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보장성보험 위주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 변경에 대비한 체질개선 과정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1분기에는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상반기 안에 예정이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

라면, 예정이율 인하 전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는 오른다.

이 가운데 건강증진형 상품도 눈에 띈다. 건강증진형 보험을 통해 고객은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보험사는 건강해진 고객을 바탕으로 위험률을 낮출 수 있어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 어려운 업황 속 미래형 상품인 건강증진형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험업계 건강보험 트렌드를 이끌어가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

유병자·고령자도 월 3만원대로 특약 가입

한화생명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간편 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간편 심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80세까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아울러 상해사망을 주계약으로 실속형과 기본형, 고급형, 자유설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보험료 3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이 원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내게 맞는 맞춤형 보험설계가 가능한 DIY 보험이다.



아울러 이 상품은 기존 간편가입 보험에 더할 수 있었던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수술 등 5개 특약 구성을 35개로 다양화했다. 최근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대상포진 및 통풍, 뇌혈관질환, 당뇨 및 합병증, 인공관절·관절염·백내장·녹내장 수술자금 등 다양한 질병들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 연령의 범위

도 넓혔다. 기존 간편 보험은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가입 연령을 최대 80세까지 늘려 100세 시대에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납입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간편보험에서는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 납입면제 대상이었다. 이 상품은 발병 빈도가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도 발병하면 납입면제가 되도록 설계했다.

삼성생명 생애설계플러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투자 수익률 관계없이 생애설계자금 보증

삼성생명은 투자 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생애설계자금을 보증하는 '생애설계플러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경제 활동기에는 사망 보장에 집중하고, 은퇴 후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설계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크게 사망보장 금액 변화에 따라 '기본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플러스형보다 사망보장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플러스형은 최초 사망보장 금액이 기본형의 3분의 2 또는 절반을 받지만, 가입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10년간 사망보장이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대신 적립금을 높여 기본형에 비해 생애설계자금 수준을 높였다.

플러스형은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증가해 기본형 대비 사망보험금 150% 보장형과 10%씩 증가해 200%를 보장받는 상품 두 가지다.



이 상품은 생애설계자금에 대한 보증 기능을 탑재해 투자수익 손실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금액을 생애설계 자금으로 지급한다. 반대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더 큰 생애설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보증되지 않는다. 생애설계자금은 개시 나이부터 주보험 가입금액의 90%를 매년 일정 비율로 감액하며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보생명 (무)교보 실속있는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일반 질병에 간병비까지 평생 보장

교보생명은 최근 '(무)교보 실속있는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업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장을 더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사망해야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상품은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고 저렴한 종신보험으로 살아있을 때 질병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에 건강보장을 결합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사망과 일반 질병(GI)과 장기 간병상태(LTC)까지 평생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GI와 LTC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80%를 진단보험금으로 미리 받아 치료비나 간병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중증치매, 말기신부전증·말기간·폐질환·루게릭병·다발경화증·중증루프스신염 등 질병도 함께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도 대폭 줄였다. 가입 시 '저해지환급



금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일반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30%만 적립된다. 이후 납입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환급금이 100%로 늘어 일반형과 동일해진다. 반면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하다. 고객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과 진단보험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이나 자녀 교육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고객센터 : 1800-4414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삼성화재 '마이헬스 파트너'

건강 증진 목표 이루면 보험료 15% 환급

삼성화재는 건강증진형 상품 '마이헬스 파트너'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주요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맞춤형 건강보험으로, 자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과 연계해 걷을 목표 달성 시 보장보험료의 최대 15%를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로 돌려준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진단, 수술, 입원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맞춤형 컨설팅 보험이다.



단비의 경우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보장해 재발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통해 뇌혈관 및 심장질환도 폭넓게 보장한다.

이 상품에는 질병후유장해와 질병입통원수술비 보장이 신설됐다.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질병으로 3% 이상 장해 발생 시 신체부위별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입통원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수술을 보장하며, 특히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해도 수술비가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통해 고객은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보험사는 건강해진 고객을 바탕으로 위험률을 낮출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암, 뇌, 심장의 3대 중대질환 보장은 기본이다. 진

DB손해보험 '참좋은혜밀리플러스종합보험'

노인장기간병 5등급·뇌전증 등 신규 보장

DB손해보험은 장기간병요양 5등급, 뇌전증 등 6종의 신보장 영역을 발굴해 기존 보장을 한층 강화한 '참좋은혜밀리플러스 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우선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가 신규 보장으로 탑재됐다.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등급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를 개발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뇌전증진단비 신담보는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127만 명이 앓고 있는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 신담보도 추가됐다.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 눈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와 특정망막질환진단비가 신규 개발됐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1~3등급으로 운영하던 노인장기간병등급 3등급이 3·4등급으로 분리되고 5등급이 신설됐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판정받을 수 있다. 기존 업계에서는 1~4등급을 보장하는 진단비는 판매 중이지만 5등급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운전자 상해보장 강화...만기 땀 보너스 금리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 담보를 강화시킨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1907'을 판매하고 있다.



개정된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1907'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보장 확대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담보 강화 △상해 및 레저 관련 신규 담보 추가 탑재 △만기유지보너스 추가를 통한 목적자금 만들기 강화 등이 골자다.

등 상해 및 레저비용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운전자보험 기본담보인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의 보장범위와 납입면제 기능을 기존 1~4급에서 1~5급으로, 형사합의금 가입금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해 운전자보험의 고유 보장과 비용성 보장을 강화시켰다. 또한, 척추상해수술, 고심도 상해인 십자인대수술비, 아킬레스건수술비, 반월관골수술비 담보를 신설하고 출원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골프용품손해 등 담보를 추가하는

자동차보험의 표준할인·할증등급에 따라 최대 7%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적립부분에 대해 확정금리(연복리 2.5%)를 적용했으며,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된 경우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를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만기환급금 지급액을 높였다.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1~2종은 만 18~최대 80세까지, 3~4종은 0~80세까지다.

메리츠화재 '내MOM같은 어린이보험'

중증 아토피·ADHD 진단비 업계 첫 보장

메리츠화재는 어린이 성장주기에 맞춰 유행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MOM같은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잘 걸리는 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업계에선 처음으로 환경질환인 중증아토피와 ADHD 진단비를 보장해준다.

미지급형을 추가로 운영 중이다. 암(유사암 포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또는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한 보험료 납입면제제도 선택 가능하다. 30세에 가입 후 최장 100세로 전환 가능한 '계약전환 기능'도 운영한다.

아토피는 집먼지 진드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염으로 아토피피부염 심도측정지수 40점 이상이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ADHD는 주의력이 산만한 아동이 충동적 행동을 하는 질병으로 ADHD의 진단기준(DSM-5)에 부합하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산모는 물론 자라나면서 잘 걸리는 최근 질병들을 반영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최초로 태반조기박리진단비와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를 보장한다.

이 상품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 없는 해지환급금

Advertisement for BRAVO My Life magazine and Bravo Jjame TV. Features a magazine cover with a man in a red jacket and text: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and '구독 문의 (02) 799-2680'.

I have a Dream - 걸을 수 있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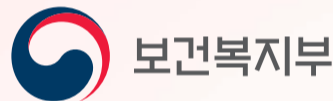
남들은 여행이다 친구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혼자 걸으면서 보는 세상 구경 -

이제 더 이상 계단도 언덕도 겁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가 무릎을 일으켜 세워준 당신 덕분에
한 발 한 발 세상 속으로 두번째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걷게하는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세요.


후원문의 : 02-597-6599 / www.ok6595.or.kr



●주최:  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
노인의료나눔재단

●후원: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사랑의열매

저소득층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무릎 인공관절수술 외 노인성 질환 수술 지원 예정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 예정
노인 관련 의료 보조기구 지원 예정

사회적 나눔을 함께 할 의료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요실금, 치질, 전립선 등 노인질환 관련 병원 및 기업
보청기,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
의료기구 마케팅 테스트 대상 활용 가능

협력 문의
문의전화 :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문연日 정기국회, 아베에겐 시련의 계절

국민에게 신의를 묻기 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실시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현재 후퇴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1대 1로 야당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예산위원회에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로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아직 남아 있다.

새해 일본 정기국회 회기가 20일(현지 시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모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 한국에 대해 몇 년간 쓰지 않았던 수식어를 쓰면서도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잘 지켜 달라”는 말로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도록 사실상 요청했다. 그렇지만 일본 언론의 관심은 스캔들투성이 된 아베 정권이 어떻게 이번 국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우선 유권자에 대한 선물 불법증여 의혹으로 물러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과 선거운동 때 운동원에게 허용된 상한금액의 두 배의 일당을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의원, 카지노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시라사 다카키(白須賀貴樹) 의원 등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번 국회는 6월 17일까지 150일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약 5개월간의 회기이지만 아베 정권의 스캔들이 위의 3명 이외에도 많아서 제대로 법안 심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당인 자민당 간부들은 올해 국회가 어렵게 시작됐다며 아베 내각의 방어일변도 전개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최근 이런저런 스캔들에 대해 모두 ‘의원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밀고 나갈 방침으로 보인다.

그리고 ‘벚꽃 스캔들’, 즉 지난해 4월 정부 행사로 개최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 선거구에서 불법적으로 약 1000명이 초청돼 그들의 음식비 지급금액 일부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단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벚꽃 스캔들에 대해서는 2018년 모임에서도 아베가 800명 정도의 자민당 지방의원들을 불법으로 초대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이 걸려 있었던 아베가 지방표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의원을 초대했다는 것이다.

최대 위기로 보였던 ‘벚꽃 스캔들’보다 최근에는 자위대를 증동으로 파견하는 문제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레바논 도주 사건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므로 아베 내각은 큰 사건들이 많아지면 결국 자신의 스캔들은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힐 거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 이후인 올해 가을 경기가 침체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아베 정권 상층부는 이번 국회에서 추가예산의 조기 성립이냐말로 최대의 경기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에게 신의를 묻기 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실시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현재 후퇴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1대 1로 야당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예산위원회에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로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아직 남아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정권 지지율이 상승했으므로 지금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아베 총리가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 측은 이번 국회에서 아베 총리를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자민당 국회의원 체포까지 나온 카지노 스캔들과 관련해 야당들은 사업 추진 자체를 저지할 계획이다. “도박에 의존하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며 야당 측은 카지노를 금지하는 법안을 20일 아침 공동 제출해 일찌감치 정부 여당과 대결 양상을 보였다. 야당들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아베 총리를 추궁할 수 있는 예산위원회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야당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江) 여사도 스캔들과 관련 있는지 추궁하려고 버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이런저런 스캔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당분간 일본 국회 상황에서 눈을 땔 수 없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유방보형물’ 암 유발, 진료기록이 없다고?

유방 확대술을 받은 소비자들 불만에 떨고 있다. 글로벌 기업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로 유방 확대술을 받았던 소비자들에게 암 확진 판정이 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세밀에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첫 암환자가 보고된 뒤 두 번째다.

이번에 확진받은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소암으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유방 크기가 변화하고, 피막에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해당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술을 받았다.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한 결과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됐다. 이 환자는 보형물 제거 등 필요한 치료

를 받고, 지난해 8월 첫 환자 발생 이후 식약처가 마련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엘러간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중에서 수술 뒤 폐업한 의료기관의 환자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된 문제의 유방 보형물은 12만여 개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시술 소비자 1명이 2개의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것으로 계산하면 환자 수는 총 6만여 명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20일 기준 식약처는 이 제품을 취급한 약 1200개 의료기관 중 80%인 9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총 4만6667명의 환자를 파악했다. 또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환자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필자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엘러간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취급한 국내 약 1200개 의료

기관 가운데 폐업한 의료기관이 431군데나 됐다. 이에 식약처는 폐업한 431곳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 70곳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진료기록 소실, 병원 개설자 연락 불가, 보관 기한 초과로 현재 17개 병원에서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1만3000여 명의 환자에게는 엘러간 유방 보형물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기록부를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건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보건소는 진료기록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며 진료기록을 가져오면 폐업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가 일하는 녹색소비자연대는 환자 안전을 위해 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의료사건 발생 시환자들에게 사건 경위와 대응 방안을 알려야 함에도 환자 추적이

어려워 고지가 안 된다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병원 진료기록 보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진료기록 보관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보건소가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클라우드에 보관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유방 보형물 암 유발사건과 비슷한 환자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 추적이 수월해진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문제를 소비자단체, 의료계와 함께 여론을 수렴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예산 일부 재정지원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클라우드 환경을 갖추는데 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텐데,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고든 바이런 명언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영국 낭만파 시인. 반속적(反俗的) 천재 시인, 미남의 젊은 독신 귀족이라 하여 런던 사교계의 총아로 등장했다. 주요 작품은 ‘카인’, ‘사르다나팔루스’, ‘코린트의 포위’.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88~1824.

☆ 고사성어 / 책임서기(責人愆己)
남을 꾸짖을 때와 자기를 용서할 때 공평함을 잊고 자기 편이대로 한다는 말. 즉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뜻. 원전은 송사(宋史) 범순인전(范純仁傳). 인품과 능력을 두루 갖춘 북송(北宋)의 정치가 범순인의 생활신조인 동시에 자식들을 훈계할 때도 늘 강조하던 말.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타인을 질책할 때는 똑똑하고,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어리석다[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愆己則昏].”

☆ 시사상식 / 바이아웃펀드(buyout fund)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고수익을 올리는 사모펀드. 미국의 블랙스톤, 칼라일그룹, 텍사스퍼시픽그룹 등 사모펀드(PEF) 회사들이 운용한다. PEF 회사들은 자금난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지만 ‘기업 사냥꾼’들의 무차별적 경영권 공격의 수단이 되는 부작용도 있다.

☆ 유머 / 디방커피
할아버지가 해외 효도관광을 떠나며 난생처음 비행기를 탔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모두 커피를 마시는데 옆의 할머니가 “저고 아가씨들이 그냥 먹으라고 줬어유”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아니 나만 빼놓고 커피를 돌려? 사람 무시하는 거야!”라며 화를 냈다.

사과하는 스텐디스에게 할아버지는 “그럼 나 커피 두 잔 타다 줘!”라고 했다. 커피 두 잔을 가져오자 할아버지가 한 말. “한 잔은 아가씨 마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여보세요? 잘 안 들려!”
애인 몰래 소개팅할 때, 학원 땀땀이치고 PC방 갈 때, 말없이 언니 신상을 꺼내 입고 나왔을 때, 아빠 지갑에서 빼놓은 한 장 빼왔을 때, 형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폐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몽땅 털어 왔을 때, 어김없이 휴대폰이 진동한다. 우리는 신기하게 주머니 진동만으로 발신자가 누군지 직감할 수 있다. 그럴 때 ‘안 들려’ 치트키로 방어하던 시절이 있었다. 입으로 “지직” 소리를 내며 신호 불량이라는 변명을 내세워도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다.
최근 흥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사를 ‘Back to the 1999’ 시절로 소환했다. “여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보

기자수첩
나경연 금융부/contest@

흥남기 부총리의 ‘Back to the 1999’

세요?” 흥남기 부총리의 어색한 ‘여보세요’ 동어 반복 때문이었는지, 통화불량이라고 하기에 너무 깨끗한 그의 음질 때문이었는지 안 들린다는 말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졌다. 기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오는 ‘안 들려’ 치트키에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네?”

라고 되물었다.
‘안 들려’ 치트키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과 매우 유사하다.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왜 3대 국정행장은 전부 관피아로 임명했는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업고 대통령이 됐음에도 왜 계속된 인사 논란에 묵묵부답인지,

검찰, 집안싸움 말고 민생사건 쟁겨라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들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보기엔 '검란(檢亂)'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란은 다시 말해 '집단항명'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발동해 검찰총장은 물론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친다.

대표적인 검란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검찰청 수뇌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하는 대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검란의 끝은 좋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오히려 조직 이기주의의 폐해라며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명분만 키웠다.

지금의 검찰은 법무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윤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잘라냈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해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검사장급 검사들이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전부 교체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대전고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검사), 이두봉 과학수사부장(대전지검장), 문홍성 인권부장(창원지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전주지검장)이 각각 명함을 새로 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에서 소윤(小尹)으로 불리던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하면 재경지검 검사장들도 다 바뀌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물갈이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 동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왜일까. 작년 7월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번째 인사를 떠올리면 답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부임한 이후 요직에 모두 측근들을 불러다 앉혔다. 그간 '특수동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찰 분위기는 특수부 출신과 그렇지 않은 검사로 나뉘었고, 소위 '엘리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수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던 형사부 검사들의 박탈감은 컸다. 검찰은 지난 6개월여간 윤 총장의 친정체제로 돌아갔다. 윤 총장을 등에 업은 특수부 검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거침없는 수사의 배경이기도 하다.

공개 항명 사태,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23일은 '2차 대학살'이 예고됐다. 하지만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수부 출신들로만 채웠던 '윤석열 사단'을 검찰 조직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동료 상갓집에서 상사를 치받는, 추 장관 표현대로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하지 않는 추세'는 검사동일체에 생긴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특수부 검사 후배가 강력부 검사 선배를 내놓고 망신을 준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 법무부는 국민 인권 보호, 민생 사건 집중을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도 민생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검찰이 불쌍사나운 세 싸움에 매여 있을수록 피해는 국민이 본다. 민생 사건 서류들에 수개월째 먼지만 쌓인다. 적폐정산 못지않게 민생도 중요하다. js62@

사설

기업 사외이사 인사권을 왜 정부가 통제하나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업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강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가 상장사의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경제계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3월부터 재직기간을 초과한 사외이사 교체를 두고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금융업을 제외한 566개 상장사가 올해 봄 718명(코스피 311명, 코스닥 407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 임기제한은 그들이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규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민간기업 이사회 구성을 간섭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반(反)시장 조치인 까닭이다.

한 회사 사외이사를 오래 하는 것의 장단점은 있다. 경영진과 유착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러면서 무슨 기업규제 완화를 말하나.

힘을 쌓은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일 수 있다. 무엇보다 누구를 사외이사로 앉히고, 임기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 자율의 영역이다. 외국에서도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곳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 인사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다.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위협한다. 사외이사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은 늘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인력풀 부족에 시달렸다. 명망은 있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과 무관한 대학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진출해온 이유다. 앞으로 이런 편향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친(親)여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정권의 의도라는 비판이 많다.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5% 룰 완화'도 문제다. 공적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완화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투기자본의 한국 기업 공격을 쉽게 만들 소지가 큰 까닭이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 강화로 민간기업 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등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러면서 무슨 기업규제 완화를 말하나.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인 말실수

이 많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번은 이래저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 번 이상 반복된 말실수는 고의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대표의 발언에 화가 난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베껴온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며 이 대표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돌아보면 이 대표는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김 장관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실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가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항의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비꼬아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김 장관은 최근 자신의 경기 고양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의 수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국민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연발한다면 과연 이들을 그 누가 국민의 대표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13세기 페르시아 시대의 시인 사아디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낮지만,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명언을 남겼다. 잦은 말실수를 하는 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더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자초하고, 나아가 자신의 인격과 품격을 낮추는 우둔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라면 말이다.

tearand76@

세무, 특!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2020년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은 부분에서 바뀐다. 그동안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24~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었던 것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5년간 6~30%의 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해 취득세가 산정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3%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4%)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지만,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2020년 5월 신고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또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상향 정할 예정이어서 중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중부세 부담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 있다면, 계속되는 세제 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통신생활을 쉽게 바꾸다



새로운 모바일의 시작



통신사, 리브모바일로 바꾸고 놀라운 통신생활 누리세요



세상 놀라운 요금제
LTE 및 5G 파격적 요금 할인



세상 간단한 가입절차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유심만 꽂으면 가입 끝



세상 쉬운 금융인증
모바일 인증서가 유심안으로! 갱신없이 인증

**LTE 무제한 요금제
반값 할인 이벤트**

- 행사기간 : 2019.12.16(월)~2020.2.29(토)
- 대상 : Liiv M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고객
- 방법 : 행사기간 중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 시 자동 적용
- 혜택 : 무제한(11GB+) 요금제 개통월 포함 12개월 반값 할인 (월 44,000원 → 월 22,000원)

*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Liiv M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직원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2061-2호(2019.12.23), 광고물 유효기한 2020.02.29까지